

www.borisudongSam.or.kr

좋은 인연으로 동산 가득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

초록연꽃

불기 2558년 / 2014(통권 15호)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

봄이 오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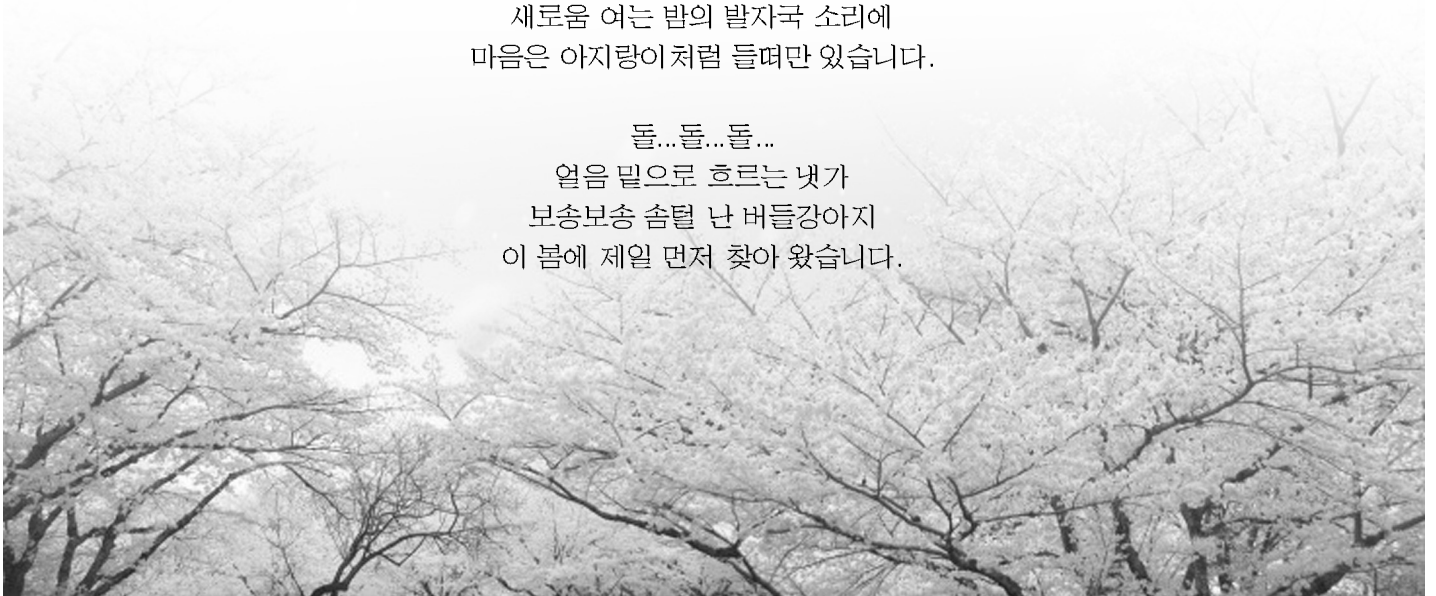
최 정 원

가지마다 봄기운이 왔었습니다.
아직은 그 가지에서
어느 꽃이 머물다 갈까 짐작만 할 뿐

햇살 돌으면
어떻게 웃고 있을지
빗방울 머금으면
어떻게 울고 있을지
얼마나 머물지
어느 꽃잎에 사람 고백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내리는 시간에도
새로움 여는 밤의 발자국 소리에
마음은 아지랑이처럼 들떠만 있습니다.

돌...돌...돌...
얼음 밑으로 흐르는 냇가
보송보송 솜털 난 버들강아지
이 봄에 제일 먼저 찾아 왔습니다.





2014년 통관15호 초록연꽃

햇살마루 ... 봄이 오는 소리(최정원).....	02
산중일기 ... 백초월 스님을 아시나요.(원장 승욱스님).....	04
발자취 ... 연혁, 아동 및 직원현황	05
처음처럼 ... ㄱ. 아이들은 좋아하는가(신은철)	06
ㄴ. 걸음마를 시작하다(허민영)	07
체험보고서 ... ㄱ. 신나는 눈썰매장(선재방 석원진).....	08
ㄴ. 무등산을 다녀와서(지장방 박사훈).....	09
ㄷ. 파파로티(지장방 박철휘)	10
교육프로그램 ... ㄱ. 보건교육(문수방 이택겸)	11
ㄴ. 성교육(안양원 신영주)	12
ㄷ. 분노조절교육(선재방 이은미)	13
육아일기 ... 가슴으로 낳은 아들 석준영 나의 품에 안기다. (이정화)	14
체험보고서 ... ㄱ. 2013 개그 빅 콘서트(안양원 김종수)	20
ㄴ.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을 하고 나서(선재방 전주영)	21
초록연시 ... 25회 장원 황경선, 차상 김종수, 차하 유승영	22
26회 장원 오수정, 차상 김광석, 석동인	23
27회 장원 박정민, 차상 전주영, 이상민	24
28회 장원 박정민, 차상 신영주, 차하 유관종	25
29회 장원 석동인, 차상 박익렬, 차하 김백천.....	26
체험보고서 ... ㄱ. 부곡하와이를 다녀와서(지장방 이상민)	27
ㄴ.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하고 나서(문수방 유승영).....	28
ㄷ. NC다이노스 VS KIA타이거즈(선재방 박경주)	29
교류프로그램 ... 제주도여행(보현방 김광석)	30
체험보고서 ... ㄱ. 슈퍼배드2(문수방 김철영).....	33
ㄴ. 스키캠프를 다녀와서(보현방 유관종).....	34
ㄷ. 대전 오-월드를 다녀와서(안양원 김백천).....	35
건강상식 ... 아침식사 꼭 먹어야 건강해져요(김은정)	36
보리수의 이모저모	38
후원해주는 분들.....	44
나눔의 행복	56
도움주신 분들 ... 후원배너	58
예결산보고	62
사랑의 후원보내기	63

백초월 스님을 아시나요?

보리수동산 원장 승욱스님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옥천사를 처음 창건한 이후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증창을 거듭하며 수행과 전법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큰스님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보리수동산을 설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인재양성을 발원하며 불보살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성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백초월 스님이 떠올랐다. 청련암 관음전의 주련을 쓰실 정도로 청련암과도 인연이 깊은 백초월 스님을 국가보훈처에서는 순국 70주기를 맞아 2014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보리수동산에서도 백초월과 같은 큰스님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분의 삶과 사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백초월스님은 1878년 2월 17일 경남 고성군 영오면 성곡리 금산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4세에 지리산의 영원사로 입산, 출가하였다. 출가 이후 경전공부와 참선수행에 전념하여 20대 중반에는 영원사 선원의 조실스님으로 인정을 받고 30대에는 남방지역의 불교계에서 그 수행력을 널리 인정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불교공부와 수행에 매진하던 백초월스님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 주로 서울 삼각산 진관사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셨다. 2009년 5월 26일, 진관사 칠성각 해체보수를 할 때 벽 속에서 90여 년간이나 감추어져 있던 만세시위 자료인 태극기와 독립신문 등이 발견되어 스님의 적극적인 독립운동이 알려지게 되었다.

틈틈이 독립자금을 구하기 위해 옥천사와 고향을 다녔던 스님은 수차례 옥고를 겪으시다가 결국 대전교도소를 거쳐,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1944년 6월 옥중에서 순국하셨다. 한 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하며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독립투사로 길러내셨던 스님은 불교 독립운동을 진두지휘 하셨지만 광복을 한해 앞두고 안타깝게 숨을 거두셨던 것이다.

백초월 스님과 같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살고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본다면 어찌 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있을까. 보리수동산에서도 백초월 스님과 같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분사 석가모니불



보리수 연혁 · 아동현황

보리수동산연혁

1976년	경남 고성 옥천사	청연암에서 아동보호 시작(주지 승욱스님)
2000년 06월 15일		“구” 좌련분교 임대(향후 5년간)
2002년 08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정도만일회 설립허가
2002년 10월 24일		“구” 좌련분교 매입
2003년 01월 13일		아동복지시설 신고(보리수동산)
2003년 07월 20일		카페 1주년 행사
2003년 12월 16일		창원전문대학 산,학 협동 협약식
2003년 12월 27일		송년의 밤 행사(해님이 밤)
2004년 07월 18일		카페 2주년 행사
2004년 08월 16일		백두대간 산행
2004년 12월 31일		송년의 밤 행사
2005년 05월 08일		어버이날 행사(지역 어르신)
2005년 07월 17일		카페 3주년 행사
2005년 08월 03일		여름불교학교(4박5일)
2005년 10월 22일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2006년 07월 08일		봉림중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6년 07월 23일		보리수동산 정도관 준공식
2006년 12월 16일		송년의 밤 행사(꿈+희망=행복)
2007년 05월 03일		창원삼정초등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07월 21일		거성실업&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10월 14일		카페 4주년&가을체육대회 행사
2008년 03월 01일		안양원 증축 (중고생 입실)
2008년 12월 13일		송년음악회
2009년 09월 16일		경남FC&보리수동산 경남FC U-15 고성 축구 클럽 창단식
2009년 12월 26일		송년의 밤 행사
2010년 10월 09일		사랑나눔 음악회
2010년 12월 18일		송년축제(꿈+희망=행복)
2011년 09월 08일		창원교도소 ‘보라미동우회’ & 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11년 10월 09일		자원봉사체육대회(borisudongsan autumn festival 2011)
2011년 12월 17일		더큰병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11년 12월 24일		송년축제(꿈+희망=행복)
2012년 11월 22일		다문화 가족 행사 (지구촌 한가족과 즐거운 식사를...)
2012년 12월 15일		송년축제(겨울 속에 핀 초록연꽃)
2013년 05월 04일		개천면 지역 공동체 어르신 사랑 한마당(어버이날 행사)
2013년 08월 31일		보리수동산 부2동 소방공사 준공
2013년 09월 22일		기능보강사업 아동생활관 준공(선재관)
2013년 12월 21일		송년축제(겨울 속에 핀 초록연꽃)
2014년 03월 19일		한국예술인협회 고성지회 & 보리수동산 자매결연

참 좋은
연연입니다.

아동현황

연령 구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기타	계
남	3	6	15	18	5		47
여	2	4	2	5	1		14
계	5	10	17	24	7		61

직원현황

직책 구분	원 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 담요원	계
남	1	1		5				1	8
여			1	10	1	1	1		14
계	1	1	1	15	1	1	1	1	22

아이들은 좋아하는가?

글 신은철 선생님



보리수동산 생활지도원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 승욱원장님께 받은 첫 질문이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가?’ 물론 아이들은 좋아한다. 천진난만한, 장난기와 순수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어리지만 나름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인격체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건 이런 의미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느덧 입사한지 한 달이 넘어섰다. 등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한명 한명이 사연을 가지고 있고 열이면 열 명 모두 다른 성격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지도해야 함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원장님께서서는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신지가 어느덧 30여년이 흘렀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아동들이 원장님과 연을 맺고 헤어지고 또 새로운 아동들이 다시 연을 맺어 생활하고 있는 보리수동산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걱정되고 고민되고 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변함에 따라 아동들도 생각하는 크기가 달라지고 있는 지금에 과연 나는 이 아동들과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란 깊은 고민. 단순히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모든 것을 아동에 맞추어 나가는 것도 정답은 아닐 것이다. 아동과 내가 함께 발전해야지만 다음 연을 맺을 아동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나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아이들을 좋아하고 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것이 보리수동산에 내가 있는 이유일 것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2년,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7년을 근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아동양육시설이다. 원장님께서도 물어보셨다. 왜 옮겼냐고 그렇다. 난 왜 옮겼을까. 일 하는 게 싫었을까? 급여가 적었을까? 주변 분들도 물어보셨을 때 나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몸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닌지. 무수히 많은 걱정과 격려의 안부전화를 받았다. 그렇다. 나는 몸이 안 좋았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정이었다. 사회복지사로서 해보고 싶은 업무와 실제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업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해 보았다. 그것이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의 반복, 다양함을 원했으나 전편일률적인 욕구, 그리고 감정이 메말라가는 이별이 점점 나를 옥죄어 오고 몸이 식어가는 느낌이 싫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가슴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메우지 못함에 있다. 4개월간의 휴식기를 거치면서 그 구멍을 메우고자 많은 경험을 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운동, 여행, 취미활동, 학습 등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 그 구멍은 작아지지 않았다.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마음먹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이전처럼 노인분야로 가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해보지 않았던 분야를 찾았고 때마침 등산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였다. 그리고 2개월, 그 구멍이 났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배우고, 아동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등산의 일과를 따라가는 데만도 벅찬 느낌이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다. 할 만하냐고. 대답해 드린다. 재미있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그만큼 새롭고 좋은 일이란 나쁜 일이든 다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고 매일 달라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음이 즐겁다.



걸음마를 시작하다

글 허민영 선생님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꽃향기를 뽐어내는 3월, 봄이 오면 나무들은 가지개를 쳐듯 서둘러 새순이 돋고 싹을 틔운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어린이집 몇 군데 합격이 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보리수동산에서 생활지도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떴다. 늘 마음 한쪽에는 복지관에서 일을 한 번 해보고 싶은 곳이라 면접서류를 보냈다.

그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뒹굴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다.

면접을 보러 온 날 동산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몇몇 아이들이 처음 보는 나를 보고 인사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한 기억이 난다.

어떻게 면접을 봤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긴장을 하였고 집으로 돌아와 합격 통보를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합격이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 소리를 질러버렸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사회에 나가는 첫 걸음마를 시작했다.

3월1일 첫 출근하는 날 모든 게 낯설고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나를 강당에 모여 있는 아이들에게 원장님이 “새로 오신 허민영 선생님이다.”라고 소개를 시켜 주셨다. 그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나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만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정말 바보 같은 첫인사였다. 첫 인사에 이름도 말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서 있으면서 나도 당황하고 소개 시켜 주셨던 원장님도 당황한 듯 보이셨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첫 인사를 끝마치고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내 생각과는 달리 먼저 다가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과 사소한 것 하나 까지도 가르쳐 주시며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빨리 적응해 나갈 수 있었고 나에게 보리수동산이라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하루하루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소한 일상이 나에게서는 추억이 되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모든 게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일상들 속에서 나는 매일 같이 “아이들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만큼 나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했다.

아이들과 지낸 한 달 동안 모든 게 부족해 보였던 내가 아이들 덕분에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충실하고 보람도 느끼며 내 인생 사회에 첫 걸음마로 정말 성공한 것 같다.

신나는 부곡하와이 눈썰매장을 다녀와서

글 선재방 석원진



오늘은 눈썰매를 타기위해 부곡하와이로 출발하였다. 추운 날씨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부곡하와이에 도착하여 입장하였고 눈썰매를 타기위해 올라가는 길은 조금 힘들었지만 신나게 눈썰매를 탈 생각에 힘든지 모르고 올라갔다.

눈길이 미끄러워 썰매가 더 잘 내려갔고 너무 미끄러운 탓에 끝까지 내려가 벽과 부딪히기도 했고 내가 먼저 썰매를 타고 내려 온 뒤 다숨이와 청란이를 기다리다가 보았는데 타고 내려오던 아이와 먼저 내려와 일어나던 아이가 부딪히는 사고를 보았고 썰매를 타면서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신나게 눈썰매를 타고 추운 날씨 탓에 얼어 있는 몸을 따뜻한 오뎅과 오뎅국물로 녹일 수 있었다.

오전에는 신나게 썰매를 탔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놀이기구 4종을 탈 수 있는 티켓을 받아들고 자유 활동을 하였다.

놀이기구를 다 타고 목욕을 하고 4시까지 정문에서 모였고 얼음조각 축제를 구경하였다.

얼음으로 요즘 유행하는 브라우니도 만들어 놓았고 미끄럼틀 등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조각들을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봉사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꼈다.

더 신나게 놀지 못 한게 아쉬웠다. 다음에도 기회가 생기면 더 신나게 놀아야겠다.



무등산을 다녀와서

글 지장방 박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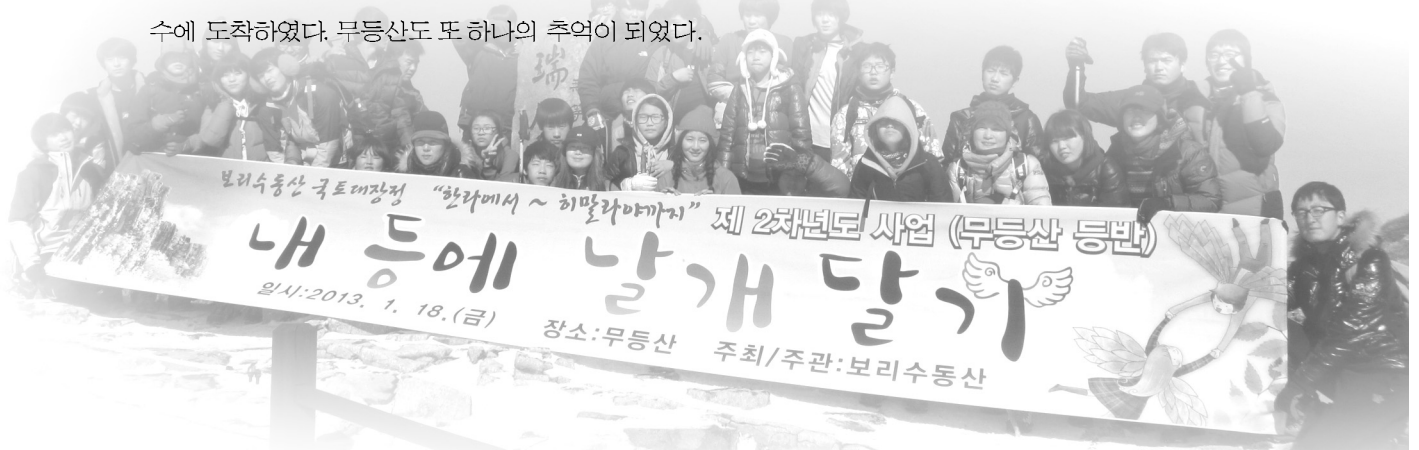
오늘은 겨울산행을 가는 날이다. 새벽4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산행장비, 간식, 물 등을 챙기고 아침식사를 하였다.

오늘 우리가 가는 산은 무등산이며 광주광역시를 감싸고 있는 산이었다.

8시쯤에 증심사지구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출발하여 처음에 간 곳은 토끼등이었다. 토끼등에는 운동구가 있었고 큰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증머리재로 가는 길이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증머리였다. 그 곳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음용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입석대와 서석대인데 올라가는 코스가 험하였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힘들었다. 입석대와 서석대에 도착하였다. 입석대와 서석대는 천연기념물 406호인 것이다. 입석대를 먼저 가보니 돌들이 엄청 잘 쌓여져 있었다. 서석대는 조금 위에 천왕봉이 있었지만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올라갈 수 없었다. 가까웠지만 서석대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은 전투식량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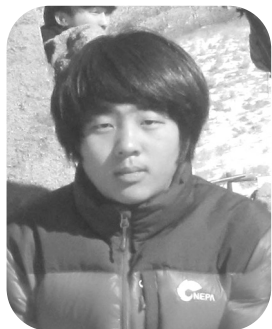


밥이 설익기는 했지만 너무 맛있었다. 서석대에서 규봉암으로 갔다. 내리막길에 얼음이 있고 그래서 아이젠을 끼고 내려갔다. 아이젠이 새로 산 것인지 현안하고 장착하기도 쉬웠다. 내리막길인지 너무 쉽게 갔다. 하지만 규봉암에 도착하였는데 5.5km나 되었다. 빨리 내려간 사람은 빨리 내려가고 나는 애들과 말하다가 원효사지구까지 가까워졌다. 원효사 지구에 도착하여 쓰레기를 모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고 버스에 탔다. 산행이 힘들었다. 버스에서 잠을 잤다. 어느새 사천에 도착하여 저녁밥을 먹고 보리수에 도착하였다. 무등산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영화 파파로티를 보고나서

글 지장방 박철휘



오늘은 작은사랑 봉사자님들이 오셔서 영화를 보러가게 되었다. 10시 50분쯤 출발을 해서 12시 쯤 진주 MBCINE라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다. 미리 예약해두었던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보았다. “파파로티” 영화의 줄거리는 어떤 건달의 중간두목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데 그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예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선생님은 건달인 장호를 싫어하며 성악을 가르쳐주려고 하지 않지만 그 건달은 계속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 집에 가서 테스트를 받게 된다. 선생님은 장호의 노래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계속 연습을 시키게 되었고 장호는 성악을 계속하기 위해 조직의 보스에게 자기를 이 조직에서 나갈 수 있게 놓아 달라고 하자 그 보스는 조건을 걸게 된다. 만약 10년 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유명해지지 않으면 건달인 장호의 목과 선생님의 발목을 자르겠다는 조건을 걸고 장호는 이를 약속 한 뒤 성악 전국대회에 나가게 된다. 하지만 가는 도중 다른 건달들에게 맞아서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탈락을 하게 된다. 7년 뒤 다시 대회가 열려서 그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 대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났다.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난 뒤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과 자장면을 먹고 보리수동산으로 돌아왔다. 좋은 영화와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작은사랑 봉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교육을 하고 나서

글 문수방 이택검



학교를 갔다 와서 숙제를 조금하다가 보건 교육을 한다하여 강당으로 올라갔다.

보건 교육을 하기 전에 술과 담배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난 뒤 보건교육을 시작하였다.

술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습관성 약물이고 계속 마시면 뇌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죽고 계속 마시면 엄청난 뇌세포가 죽어서 치매가 오게 된다. 또한 식도암, 대장암 등에 걸리게 되고 간은 일을 계속 해서 간에 딱지가 앉다가 간암에 걸리고 만다.

그다음은 담배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먼저 담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끼로 실험을 한 동영상을 봤다. 실험 영상에서는 담배연기를 마시기 전에는 토끼의 귀에 핏줄이 잘 보이다가 담배연기를 들이 마신 후에는 핏줄이 수축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고 담배는 직접 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다. 그리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면 구강암, 폐암 등에 걸리게 되고 겉으로 암이 드러나 정말 끔찍했다. 담배에는 4000여종의 독성화학물질이 있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을 했다. 사춘기 몸 변화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고 동영상에는 성별이 다른 두 아기가 나왔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신체 변화에 대해 보여주었다.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사춘기 심리변화와 사춘기초기의 신체변화에 대해 알려주셨다. 사춘기에 신체가 변화에 필요한 준비 및 관리에 대해 알려주시고 교육을 마쳤다.



성교육을 받고 나서

글 안양원 신영주



일 년 중 한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교육을 받는 날이다. 오늘은 강당이 아닌 안양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성교육을 하면서 작년 12월 고성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내용은 장애인 어린이를 성폭력 했고 성폭력을 한 사람은 1명이 아닌 4명이었다고 하셨다. 그중 두명은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두명은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셨다.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화도 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아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장애아동을 상대로 했다는 것에 화가 났다.

토론형식이 성교육이 끝나고 푸드테라피라는 미술심리 치료도 받았다.

푸드테라피라는 음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여 치료를 받는 미술심리치료의 일종이었다.

주제는 꿈, 장래희망이었고 푸드테라피의 재료는 과자였다. 과자를 이용해 자기의 미래를 그리는데 나는 의사, 공무원 등 이런 것을 그리지 않고 벽 하나를 그렸다.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하니 막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벽을 하나 세웠다. 깜깜했다. 그리고 나는 도전과 노력이라는 힘으로 이 벽을 허물겠다는 내 마음을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잘 했다는 칭찬과 박수를 쳐주셨다.

오늘 심리치료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내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해진 것 같아 너무나도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분노조절에 대해서

글 선재방 이은미



오늘은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있는 날이었다.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한다고 해서 강당으로 올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올라 오셔서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 오후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다.

점심을 먹고 올라와서 1시부터 시작하였고 첫 번째로 친해지기 위해 게임을 하였다.조를 나눠서 게임을 하는데 나랑 득수가 같은 조였다. 그런데 선생님이 세 명이 한조를 만들라 하셔서 경주도 우리 조가 되었다. 각 조의 조장을 뽑는데 내가 조장이 되었다.

게임을 끝내고 나서 분노조절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였고 먼저 감정에 대해서 배웠다. 밤에 사람 얼굴이 나왔고 그 얼굴에 표정을 보고 감정을 맞추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 하였고 지난 일주일 간 화가 났던 적을 생각해서 종이에 적었다.

그 다음에 또 게임을 하였고 모든 애들이 손을 잡고 엉켜 잡은 손을 놓지 말고 푸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게임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동영상상을 보고 나서 퀴즈를 풀었고 네 번째로는 나 전달법에 대해 배웠다. 배운 것을 토대로나 전달법으로 글을 써보는 것을 하였다.

그 다음 강사님이 좋은 말을 몇 가지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말들과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감정에서는 자기 기분을 자주 표현하는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자기표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에서 자기표현을 제일 잘 한 몇 명만 뽑아서 상을 주셨다.

다음에는 분노조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야겠다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 석준영 나의 품에 안기다.

글 이정화



2011년 03월 18일 15:00경 옥천사 청련암 종무소 옆 마루에 생후1개월 가량 된 남아가 발견되어 청련암 성각스님이 보리수동산으로 연락을 하여 국장님과 동행하여 보리수동산으로 영아를 데려왔다. 발견당시 영아 옆에는 아기이불, 기저귀 한 묶음, 분유2통, 젓병4개, 내의4벌과 함께 "아이에 대해 조건 없이 포기하며, 스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편지가 남겨져 있었다.

영아는 겹싸개와 속싸개에 싸여져 있었고, 배꼽에는 아직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분유는 2~3시간 간격으로 30~40ml정도를 먹으며, 소변은 하루에 15~20회를 누며, 대변은 10~12회를 보는 등 흑녹색의 대변을 누는 것으로 보아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 보였다. 아기를 내 품에 앉는 순간 그 느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가 가슴깊이 전해져왔다.

이후 경찰신고 및 실종아동기관에 신고하여 DNA검사와 부모 찾기를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당시 영아는 이름이 없는 상태라 원장님께서 작명가를 통해 박석 峻준 瑩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2011년 5월경 법원에 "석준영"이라는 성, 본 서류를 접수하여, 6월10일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로 등록하여 성, 본 창출과 함께 주소를 개천면 좌연리 633-1로 주소지 등록을 하였고, 이로써 준영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처음 준영이와 만난 날을 기억하며 한~컷(2011년 03월18일)

♥준영이가 우리와 가족의 인연을 맺게 된 날을 지금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속싸개와 겹싸개에 싸여 두 눈을 꼭 감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을 말이다. 준영이가 한 동안 입고 지냈던 배넛저고리, 양말, 기저귀밴드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한~컷! (2011년 03월 20일)



♥준영이가 태어 난 지 11일 만에 엄마와 자신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던 탯줄이 예쁘게 아물고 떨어졌다. 그 날의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기념사진으로 남겼다. 원장님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커 우리 준영이가 더욱더 건강하게 맑게 자라 나가는 것 같다.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을 달아두는 풍속이 있기에 친정아버지께 부탁을 드려 금줄을 만들어 매달아 놓았다. 새끼줄에 빨간 고추, 숯을 달아 정성껏 만들어 주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 준영이 더 건강히 잘 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해 본다.(2012년 03월 26일)



♥오늘은 준영이가 두 눈을 제법 방긋이 뜨고 살포시 웃는다. 해맑은 미소가 너무나 예뻐 두 볼에 살짝 뽀뽀를 해 주었다. 한동안 태변을 보던 준영이가 오늘은 예쁜 황금응가를 누었다.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엄마라면 누구나 느꼈을 진짜 황금응가를 말이다.

♥우리 준영이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이 생겼다. 문산에 화장품가게를 하시는 보살님께서 자신의 모유를 팩에 얼려 오셨다. 보살님의 아기도 준영이보다 두 달 정도 빠르다고 하시며, 자신의 아이를 보듯 준영이에게도 모유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천사같이 고운 분이시다. 모유와 분유를 병행하여 먹어서인지 준영이가 잔병 없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 가슴깊이 고마움을 느낀다.

♥평소 카메라 없이 살던 내가 준영이를 위해 카메라를 구입했다. 순간순간의 예쁜 모습을 사진에 담아 훗날 준영이가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그날을 생각하며 말이다.

요즘 들어 준영이가 밤낮의 리듬이 바뀌었는지 밤엔 거의 잠을 안 잔다. 어른들 말씀에 백일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니 백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될 것 같다. 하루하루 예쁘게 커가는 준영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본다.



♥두 달 전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해가는 준영이... 볼에는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눈도 곧잘 맞추더니 웅얼이까지 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영특한 아가다. 낮엔 베란다에 나가 따스한 햇살 받으며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살포시 웃으며 행복을 안겨주는 사랑스런 준영이... (2011년 05월 03일)

♥준영이의 백일 날 아침...

원장님이하 전체 선생님들이 백일잔치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인다. 풍선도 불고 백일상도 차리고 있는 이 시간 준영이는 백일이란 걸 알기라도 하는 걸까! 새근새근 잠을 잔다. 엄마가 백일 준비를 할 수 있게 말이다. 기관단체장님과 지역 어르신 그리고 봉사자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가득 받으며 백일잔치를 마무리하였다. (2011년 06월 23일)



♥현재 준영이는 5개월이 지나고 있다. 처음 왔을 때는 분유를 2~3시간 간격으로 30~40ml정도를 먹더니 이젠 1회 분유량도 180ml되고, 변 역시 10~12회를 보던 아기가 이젠 하루 1회의 황금응가를 누고 있다. 엄마에게 웅얼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활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등 사랑과 귀여움을 가득 받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준영이로 인해 행복한 미소가 지어진다. (2011년 07월 15일)



♥미륵방 아이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 준영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생을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다. 동생을 위해 TV소리도 낮추고 흑 잠자는 동생이 일어날까봐 조용조용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온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미술시간에 만들었다며 여러 가지 그림들과 모빌까지도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응가한 기저귀를 베란다 박스에 넣어도 주고, 울기라도 하면 안아서 다독여 주는 이런 소소한 모습들이 훗날 우리 아동들이 성장해나감에 있어 좋은 경험과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니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2011년 08월 20일)



♥준영이가 하루 중 제일로 좋아하는 시간은 목욕시간이다. 얼굴과 머리를 감기고 몸을 목욕대야에 담그면 기분이 상쾌한지 크게 웃기도 하고 두 손으로 물장구를 치는 등 자신이 감정을 몸으로 때론 큰 웃음으로 표현한다. 목욕 후 쪽쪽 체조 시간도 좋아한다. 엄마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으면 간지럽기라도 하듯 깔깔 깔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오일로 마무리 한 후 기저귀를 채우기 직전 오줌을 엄마얼굴에 누나. 준영이가 또 한 번 엄마를 웃게 만든다. (2011년 09월 20일)



♥가을 하늘도 가을 햇살도 너무나 예쁜 오늘, 보리수동산의 막둥이 준영이와 은행잎을 밟았다. 은행 알의 찢힌 구린 냄새도 노란 은행잎의 아름다움에 한 발 물러서기라도 하듯 우리를 반긴다. 준영이도 분명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들었을 것이다. 엄마가 조용히 속삭이는 가을의 이야기를 말이다. (2011년 10월 30일)

♥준영이는 현재 개월 수에 해당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다 완료한 상태이다. 감사하게도 건강히 자라주어 접종시기를 놓치지 않아서이다. 갓난아기 땀 주사를 맞아도 금방 울음을 그쳤지만 요즘은 보건소 이모만 봐도 울기부터 하는 우리아가 준영이... 그 만큼 많이 자랐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며칠 전에는 B형간염 항





체형성 검사를 하였는데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현재 준영이는 윗니가 두 개씩 올라오고 있다. 또래 아기에 비해 조금 성장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튼튼히 자라준다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2011년 12월 23일)

♥준영이의 돌이 다음 달로 다가옴으로 인해 오늘은 중리에 위치한 아이스튜디오에 방문하여 돌 사진을 찍고 왔다. 그곳은 아이전용 촬영장이었는데 수십 벌의 옷과 다양한 소품들이 맞춤형으로 갖춰져 있었다. 이런 멋진 곳도 있었나 하는 생각에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느꼈다. 사진관 이모가 아이가 많이 울고 보채면 촬영하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우리 준영이는 자신의 돌사진을 찍는 것을 아는지 울지도 않고 너무나 예쁜 포즈를 취하며 사진 촬영을 마무리 하였다. (2012년 02월 23일)



♥준영이 돌잔치가 열리는 날....

전체 선생님들과 함께 몇 주 전부터 준영이 돌잔치 준비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초대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품들을 준비하면서 준영이가 걸어온 일 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다.

후원자님, 봉사자님, 지역 어르신과 기관단체장님, 원장님이하 전체 선생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영이의 돌잔치가 열렸다. 준영이도 예쁜 한복으로 갈아입고 오시는 분들에게 합박웃음으로 답례했다. 김동우선생님의 멋진





진행으로 행사장 안은 웃음으로 가득했고 준영이는 들잡이로 염주를 잡았다. 우리원장님이 너무나 좋아하셨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축하를 받으며 준영이의 돌잔치는 잘 마무리 되었다. 준영이와 1년의 길고도 짧은 시간동안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울기도 하고 때론 많이 웃기도 했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이날의 행복하고 따스한 돌잔치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준영이의 돌 준비

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보리수동산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2012년 03월 16일)

♥벚꽃이 활짝 핀 연화산 뒷길로 준영이와 나들이를 갔다. 봄 햇살이 너무나 눈부시고 만개한 벚꽃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눈꽃이 휘날리니 신기한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웅얼거리는 우리 준영이의 모습에서 또래에 비해 성장이 조금 느려 걱정은 되지만 나의 경험과 주위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대체로 늦다고 한다. 현재 준영이는 걸음마 연습중이라 옷장을 잡고 이곳저곳을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탐험한다.

얼마 전에 구입한 블록으로 맞추기 놀이에 몰입도 하고 동요가 나오면 몸을 들쭉이며 흥겨워하며 동요 삼매경에 빠진다. 준영이가 주위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맘껏 탐험해 나가도록 사랑과 배려 그리고 맞춤형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준영이는남을 배려하는따스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랄 것이라 믿는다.

(2012년 05월 12일)



♥몇 개월 사이 준영이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17개월에 기다리던 걸음마를 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말이다. 이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요즘 공양시간에도 제법 큰 아이처럼 숟가락을 지고 밥을 먹는다. 아직은 어설피지만 스스로 해나가려는 모습이 기특하고 예쁘다. 준영이도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손으로 가리키고 달라는 표현을 한다. 아직 할 줄 아는 낱말과 언어는 없지만 가끔 엄~마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불렀다고 믿고 싶다. 공양을 하기 전 멋진 모습의 준영이를 사진에 담아 보았다. (2012년 08월 02일)

♥추석날 아침 준영이를 고운 한복으로 갈아 입혔다. 한복을 입고 마당을 걸어 다니는 준영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여웠다. 우리 준영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님, 봉사자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과 우리 원장님이하 전체 선생님들의 사랑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아이 한 명이 자라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듯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선다면 못 이룰 게 없는 것 같다. 앞으로도 준영이가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심성이 바른 아이로 자라도록 나의 파트너인 정재희선생님과 함께 배려 깊은 사랑을 담아 준영이를 잘 키워나가도록 성심을 다해야겠다. (2012년 09월 30일)



개그빅콘서트를 보고와서

글 안양원 김중수



6시 공연을 위해 저녁을 빨리 먹고 동산에서 출발을 하였다.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연예인들이 왔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공연티켓을 받아들였다. 랜덤으로 받은 티켓이라 자리가 좋지 않았지만 공연을 보며 웃고 즐길 생각에 시작 전부터 기분이 좋았다.

공연의 막을 연 건 김재욱이라는 개그맨이었다. 개그맨 김재욱은 공연에티켓에 대해 재미있는 입담으로 설명하며 공연장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평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여러 개그맨들이 나와 다양한 공연들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공연은 전국구, 신사동노랭이 등 다양했지만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나쁜 사람’이라는 코너였다. 그 이유가 공연을 하는 도중 관객이 던진 한마디에 출연진은 물론 공연을 하던 개그맨들도 공연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큰 타격을 줬기 때문이었다.

또 탈옥이라는 코너에서는 개그맨들이 죄수로 나와 관객들을 한 명 한 명 인질로 잡아 무대 위로 데리고 올라갔고 경찰관역할의 개그맨이 말하는 요구 조건을 성공하면 죄수가 잡고 있던 관객들을 풀어주는 코너였다. 개그맨 죄수 중에서 인질로 잡혀 온 관객에게 빵을 맞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요구 조건으로 공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그맨들이 나와 뮤지컬을 선보이며 모든 공연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 공연을 보면서 개그맨들의 노래실력도 수준급이었고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의를 거쳐야 하는 지를 생각하니 개그맨들이 대단해 보였다.

공연을 다 보고 동산으로 돌아오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옆에 개그맨들이 타고 온 버스를 보고 더욱 아쉽기만 했다. 다음에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글 선재방 전주영



오늘 보리수동산에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이라는 체험 할 수 있는 버스가 왔다. 버스로 내려가니 피에로가 우리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나눠주었고 초콜릿을 먹고 차에 탑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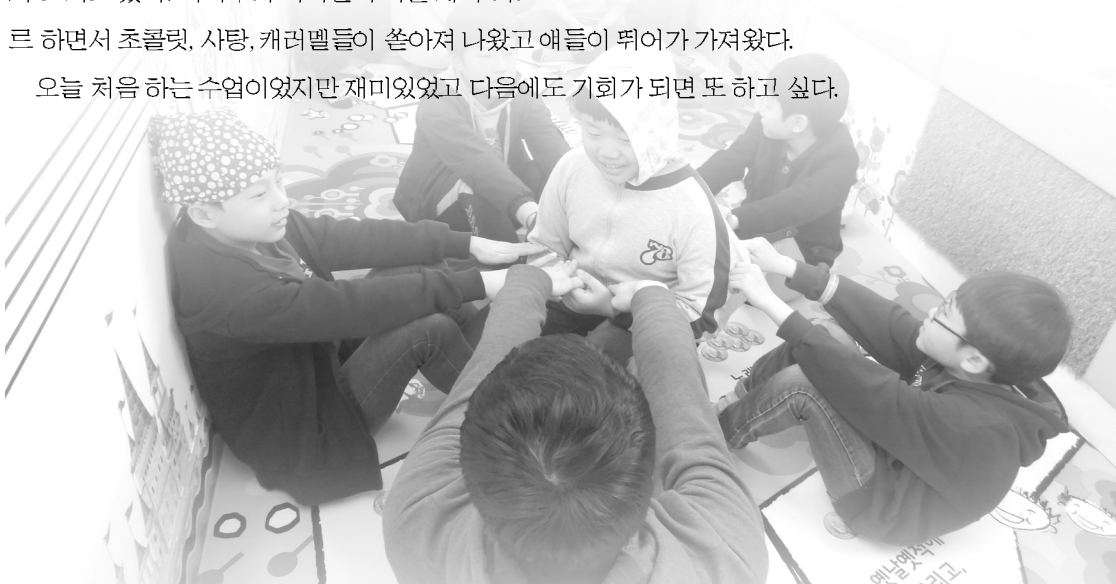
버스에 탑승하니 일반버스와는 다르게 좌석도 없었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리둥절했지만 퀴즈도 맞추고 게임도 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내 이름표를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고 적어 런닝맨처럼 등과 가슴에 붙여보기도 했다.

또 재활용 페트병에 스티커와 색종이를 이용해 로켓도 만들어 친구들에게 소개도 해보았고 서로의 얼굴에 화장품을 이용해 화장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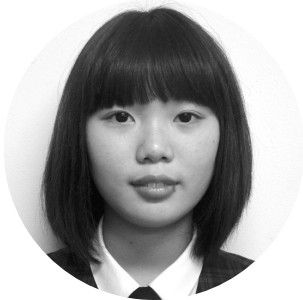
신문지 한 장을 놓고 7명의 친구들이 모두 올라가 성공을 하면 반씩 접어 나가는 게임도 하였다. 주사위를 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가버렸다.

마지막으로 박 티트리기를 하였는데 박지우와 박지환이 달려와서 방방이로 박을 치면 우리가 가져 오기로 했다. 박지우와 박지환이 박을 치자 와르르 하면서 초콜릿, 사탕, 캐러멜들이 쏟아져 나왔고 애들이 뛰어가 가져왔다.

오늘 처음 하는 수업이었지만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다.



제25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5회 장원
선재방 황 경 선

봄 데이트

새싹이 돋아나는 봄
싱그러운 햇살 맞이하여
아침에 바베큐 움직인다.

남자친구와 데이트 있는 날
'무슨 옷 입고 나갈까?' 하며
거울 앞에 서성거린다.

콩닥콩닥 뛰는 가슴 안고 나선
따스한 봄 데이트



25회 차상
안양원 김 중 수

봄나들이

사람들이 봄비는 곳에서
그 중앙에 서 있고
친구들이 즐기는 곳에서는

그 끝에서 있고
가족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그 품안에서 있다.
지금은 즐거운 봄나들이다.



25회 차하
문수방 유 승 영

만약 내가 공룡과 같이 살았더라면

만약 내가 공룡과 같이 살았더라면
공룡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 거야.

만약 내가 공룡과 같이 살았더라면
공룡과 사람이 서로 도우는 세상을
만들 거야.

만약 내가 공룡과 같이 살았더라면
공룡을 배려해 줄 거야.

만약 내가 공룡과 같이 살았더라면
공룡과 같이 잘 살 거야.



제26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6회 장원

선재방 오 수 정

봄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톹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하도 반가워

나비는 너흠너흠 춤을 춥니다.
이른 봄 어느 날인가
소리 없이 새싹이 돋아나고

산수유 노란 꽃을 트고
목련 꽃망울을 부풀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뒷목
봄의 뒷목



26회 차상

보현방 김 광 석

우리들의 전쟁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시험

시험기간이 되면
공부와 전쟁을 한다.

점수 정복하기 전쟁을 한다.
적을 알아야 이기는 전쟁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절망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우리들의 전쟁



26회 차상

문수방 석 동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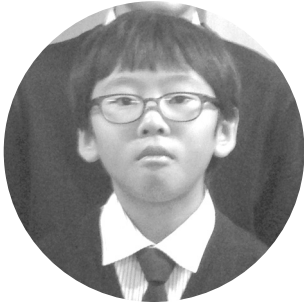
여름

여름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후덜후덜 아이스크림

여름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아삭아삭 맛있는 수박

여름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첨벙첨벙 물놀이

제27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7회 장원
문수방 박 정 민

칠판

칠판은 초록색이다.
선생님 말씀 한마디에
하얀 선이 그어지고
수업이 끝나면 지워진다.

칠판은 푸른 들판이다.
하얀 선이 그어지면
푸른 들판에 하얀 꽃이 피고
노란선이 그어지면
푸른 들판에 노란 꽃이 핀다.



27회 차상
선재방 전 주 영

도사리(후회)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열매
열매가 말한다.

"하하 나는 조금만 있으면 맛있는
열매가 돼"
잘난 척 한다.

휘잉~
바람이 분다.

아앗! 쿵!
"이걸 좀 알았으면 잘난 척
하지말걸"
"하하하"남은 열매들이 비웃는다.



27회 차상
지장방 이 상 민

도사리(난 쓸모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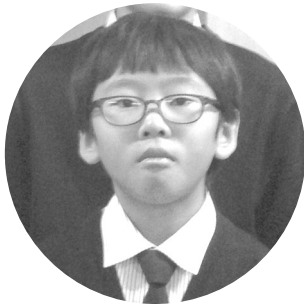
어젯밤
태풍이 불었다.
그 태풍 때문에
나는 땅으로 떨어졌다.

지나가던 개가 한입 물고는
"으~맛없어!"
지나가던 사리가 찹고는
"에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렸다.

하지만 한 아주머니가
나를 주워가
웃음 예쁘게 물들였다.
"아~나는 쓸모 있는 농이구나."



제28호 |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8회 장원

문수방 박 정 민

밤

밤을 보면 익은 건지
아닌건지
잘 분간할 수 없다.

밤은 갈색에다가
뽕죽하다.
가시처럼 압정처럼
뽕죽하다.
고슴도치 같다.

나는 밤이 뽕죽한 껍질에 붙잡혀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오면 뽕얀 속살을 보여주기 위
해
자라나는 것 같다.

밤처럼 방에 갇혀 공부하다
머리에 지식이 쌓여서 익으면
톡 톡.
까서 나누먹을까?



28회 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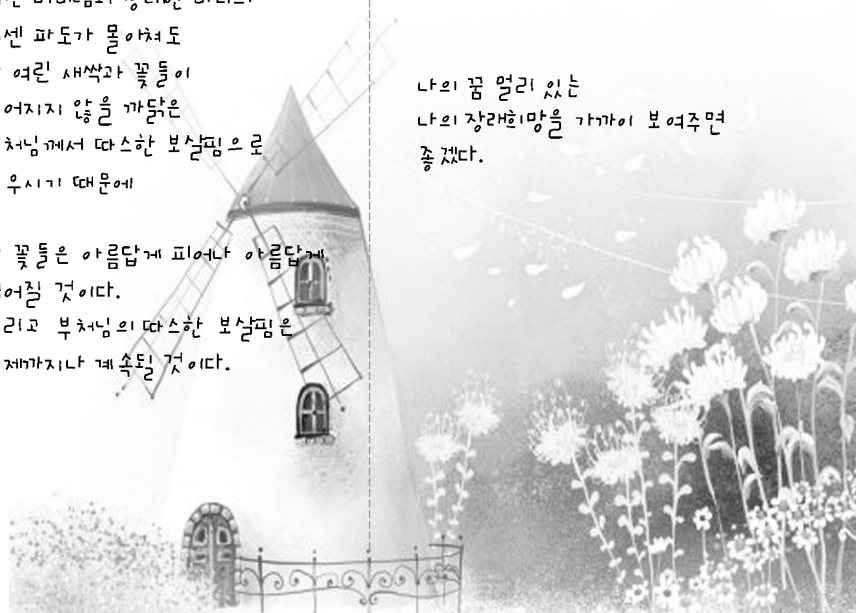
안양원 신 영 주

주 소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633-번지
여기는 보리수동산이다.
여기는 새파란 어린 새싹들과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 중인 꽃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어떤 비바람과 광대한 바다의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이 어린 새싹과 꽃들이
넘어지지 않을 까닭은
부처님께서 따스한 보살핌으로
키우시기 때문에

이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나 아름답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따스한 보살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28회 차하

보현방 유 관 종

망원경

망원경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물건

망원경이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꿈 멀리 있는
나의 장래희망을 가까이 보여주면
좋겠다.

제29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9회 장원
문수방 석 동 인

비누

비누는 여러 가지 용도
외출하고 난 후 쓱쓱쓱
밥먹기 전 쓱쓱쓱

비누는 여러 가지 색
파란색 노란색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지개색

비누는 여러 가지 모양
꽃모양 동물 모양
우리들이 좋아하는 과자 모양

비누는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



29회 차상
보현방 박 의 렬

손수건

손수건은 정말
많은 용도를 쓰인다.

우리 누나의 손수건은
눈물을 닦는데 쓰이고

아빠의 손수건은
안경을 닦는데 쓰이고

동생의 손수건은
침을 닦는데 쓰인다.

그러면 나의 손수건은?



29회 차하
안양원 김 백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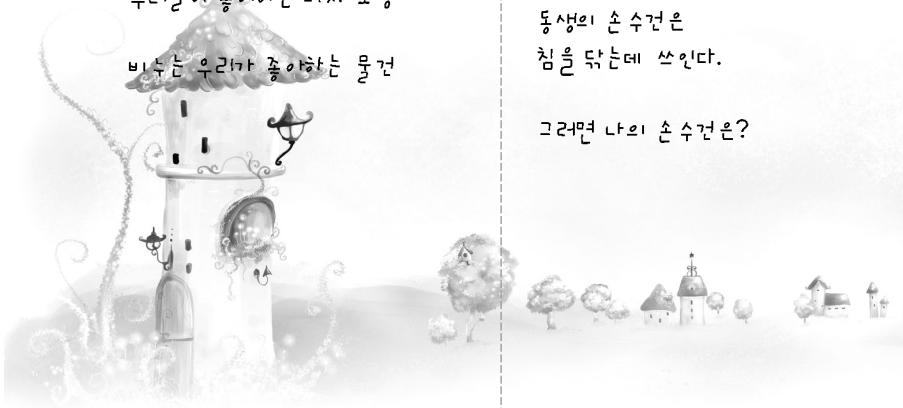
악기

쿨쿨쿨
비데 소리

칼칼칼
샤워하는 소리

어둑어둑
세수하는 소리

나에게는
모든 것이
악기가 된다.



부곡하와이를 다녀와서

글 지장방 이상민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곡하와이 날이 왔다. 매년 겨울, 여름에 가는 곳이지만 오늘은 수영장에 가는 날이라 더욱 기대가 되었다. 8시30분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보리수동산에서 출발했다.

10시15분 부곡하와이에 도착했고 티켓팅을 한 후 수영복으로 갈아 입으러 갔다.

수영장 1번 라인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니 나머지 친구들과 형들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나왔다.

놀다가 야외 수영장에 가서 비비슬라이드를 한 번 타고 비치볼을 가지고 다른 동생들과 친구들과 형들과 수중배구를 하였다.

그러나 안전요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여 파도 풀장에서 놀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20분 동안 쉬다가 안전점검시간이 끝나자 다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놀다가 비비슬라이드를 또 타러 갔다.

그리고 나서 다이빙장에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너무 깊어서 놀랐고 물에 잘 뜨지 않았다. 안전요원이 도와준 덕분에 물에서 나왔다.

그 후 다시 파도풀장에 누워 있다가 나와서 150cm이상 들어갈 수 있는 야외풀장에서 놀았다.

놀다가 자장면을 먹으러 갔다. 자장면을 먹고 목욕탕에 갔다. 목욕을 하고 나와 얼음조각 전시관에서 갔다가 오락실에 있다가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은 후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힘써주신 작은사랑회 봉사자님들과 보리수동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과학교실

글 문수방 유승영



오늘 2시부터 강당에서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하였다. 맨 처음 폴리스티렌 휴대폰 고리를 만들었다. 폴리스티렌에 키티를 그렸다.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을 오븐에 넣고 가열했더니 폴리스티렌이 줄어들고 저기에 고리를 끼우니 휴대폰 고리가 되었다. 폴리스티렌에 열을 가하면 작아지는 성질을 이용했고 폴리스티렌은 가소성 수지였다.

그 다음 에어로켓을 만들었다. 운동에 법칙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성, 두 번째는 가속도, 세 번째는 작용반작용이었다. 오늘 만들 에어로켓은 작용반작용이 적용됐고 에어로켓을 날리니 재미있었다.

세 번째로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초콜릿을 만들며 뿌리의 기술에 대해 배웠다. 뿌리 기술은 소재로부터 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하는데 주조, 금

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이 있었다. 주조는 재료를 녹여 틀에 부어 제품을 만드는 기본적인 기술이고 오늘 만드는 초콜릿은 중탕그릇에 넣고 녹여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데 적용되었다.

금형은 소재의 소성, 대량생산에 이용하는 틀이었다. 오늘 초콜릿을 만드는데 모양을 만드는 몰드가 적용됐고 용접은 2개의 금속재료 사이에 용가재료를 첨가하여 접합하는 기술이었다. 열처리는 금속 및 합금의 성질을 열에 의해 변화시키는 처리법이었다. 표면 처리는 재료의 표면을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처리하는 기술인데 오늘 초콜릿을 만드는데는 표면에 코팅처리를 하여 잘 녹지 않게 하는데 적용됐다. 소성 가공은 재료를 원하는 틀에 위치시킨 후 힘을 가하여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원하는 모양을 얻는 기술이었다.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종이를 보았다. 종이가 평평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구불구불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직접 현미경으로 종이를 보니 구불구불하고 신기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 하였다. 한국생간기술 연구원에서 재미있는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했다.



NC다이노스 VS KIA타이거즈

글 선재방 박경주



오늘 드디어 기대하던 야구경기를 보러 간다. 처음 보러 가는 야구경기에 들뜬 마음으로 옷과 모자를 받았고 4시에 보리수동산에서 출발하여 5시에 마산NC홈구장에 도착하였다. 경기시간이 6시였기 때문에 더운 햇볕을



맞으며 기다렸다.

NC홈구장이라 그런지 NC다이노스 팬들이 많았고 우리는 KIA타이거즈 팬으로써 경기를 관람하러 가는 것이었다. NC홈구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발디딜 틈이 없었다.

우리가 오늘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은 KIA 회사원 분들이 조금씩 모아서 경남에 있는 우리 같은 시설 3곳을 초청해 주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시작되고 평소 야구에 관심이 없던 지라 야구 룰도 몰랐다. 옆에서 동생들이 하는대로 따라서 응원을 하다가 실수로 NC다이노스 팀을 응원하기도 했고 경기 룰을 모르다 보니 경기를 보면서 옆에 동생들에게 물어보며 점차 야구에 빠져 들게 되었다.

경기 초반 2라운드에는 1:1로 비기고 있었고 4라운드 까지만 해도 4:3으로 KIA타이거즈가 이기고 있었다. 야구경기를 보는 중간 중간 응원을 하는데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한참 경기를 보던 중 7라운드에 접어들면서 부터 5:4로 역전되고 말았고 NC다이노스의 모창민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8:4로 패하고 말았다.

야구 순위로 보서는 KIA타이거즈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NC다이노스가 이겼다. 아쉬움과 여운이 오랫동안 가시질 않았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KIA 직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꼭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일교류캠프를 다녀와서

글 보현방 김광석



8월22일, 이번 한·일청소년교류 캠프는 출발하기 전부터 기대 되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비행기와 처음으로 제주도에 간다는 생각에 나는 기분이 좋았다.

새벽 5시30분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바로 출발 했다. 경남종합사회 복지관에 가면서 이번 일정과 명단을 보게 되었다. 일정에는 견학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이번 캠프는 많이 바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한 숨만 나왔다. 어느새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도착했다.

복지관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로 출발 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입국하는 친구들을 환영해주기 위해서였다.

입국 환영식을 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작년에 만나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어색하지?’라고 생각하며 김해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잠시 어색한 느낌을 잊어버리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는구나.’ 하고 설레는 기분으로 공항을 둘러보았다. 둘러보다 보니 시간이 다되었고 비행기 표와 학생증을 보여주고 들어갔는데 비행기 탑승구가 많았다. 그리고 비행기를 바로타는 것이 아니고 출발시간 10분~15분 전에 탑승하는 것이었다.

처음 타는 비행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 던 나는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말에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줄을 섰다. 비행기 표를 보여주고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 번호를 보고 내 자리에 찾아갔다. 창가에 앉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복도 쪽에 앉았다.

하지만 창밖을 보았을 때 풍경 하나는 엄청 예뻐다. 지상에서 보았던 구름과 비행기에서 보는 구름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뻐고 이때까지 보았던 구름 중에서 제일 최고였다.

사진 두 장을 찍고나니 벌써 제주공항에 도착하였고 제주도는 섬이라 그런지 너무 더웠다. 그리고 자라는 식물들 대부분이 열대 식물들이었다.

잠시 감탄에 빠져있을 동안 버스는 식당에 도착하였고 제주도의 특산물인 흑돼지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일단 돼지고기와 다르게 씹히는 질감과 혀로 느껴지는 맛이 엄청난 차이였다. 맛보지 못한 맛을 느껴보니 다른 나라에 온것 같았다.

그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고 삼성혈에 가보았다. 삼성혈은 옛날 탐라를 창시하



신 삼신인이 용출 했던 장소였다고 한다. 제주도의 탄생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다. 삼성혈에서 제주도의 탄생에 대해 알고 나서 옛 제주도의 동·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갔다. 제주도의 형성과정부터 동·식물에 대해서 보는 중에 산갈치라는 물고기를 보았다. 보통 물고기의 크기는 1m가 넘는 것은 별로 없는데 1986년 12월 9일 제주도에서 발견된 산갈치는 4m나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제주도의 역사를 알아보고 나서 한림공원으로 이동하였고 한림공원에서는 현재 제주도의 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아열대 식물원에는 선인장, 아자수정원, 열대과수원 등을 볼 수 있었고 아열대에 서식하는 도마뱀, 거북이 등 귀여운 동물도 많았다.

제주도는 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열대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한림공원에서 신기한 동·식물이 많았지만 엄청 좋았던 곳은 3개의 동굴이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고 그러던 중 등굴이 보여 그곳으로 들어 가보니 엄청나게 시원했다. 그런데 협재굴, 쌍용굴, 황금굴 3가지 동굴을 다 돌고 나서 밖에 나오니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시간이 없어 그냥 비를 맞고 버스로 뛰어갔다. 약간 오는 소나기였기 때문에 비를 맞고 가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었다. 오늘 일정인 삼성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한림공원 이렇게 3곳을 견학하고 나니 시간은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방 배정을 받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작년과 똑같이 일본친구들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데 이번엔 뭔가 어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색함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모여 과자를 먹으며 구글번역을 이용해 이것저것을 물어보며 어색함을 풀어나갔다.

8월 23일 아침, 아침밥을 먹고 준비를 하고 제주축협복합문화센터로 이동하였고 4인 1조로 활동하였다. 우리 조는 일본 친구 두 명과 나, 영천이형이 같은 5조였다. 처음에는 치즈 늘리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내 쪽으로만 늘어났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일본 친구들이 당기니 그 쪽으로 늘어났다. 치즈 늘리기를 하고 나서 피자를 만들어 먹는다는 말에 우리는 바로 피자 토핑을 시작했다. 처음해보는 피자토핑은 재미있었다. 평소에 시켜먹는 피자과 우리가 직접 토핑을 올리고 만들어 먹는 피자는 다른 느낌이었다. 피자를 먹고 나서 우리는 다음 일정 때문에 단체 사진을 빨리 찍고 삼다수 공장으로 갔다. 제주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삼다수 불인데 그걸 만드는 공장에 가보았다. 공장에 견학할 수 있는 코스와 홍보관을 둘러보니 제주도의 불 삼다수 생산 과정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오설록티뮤지엄이라는 박물관에 갔고 이름만 듣고 큰 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은 박물관이었다.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 녹차에 관련된 상품을 팔고 있었고 녹차아이스크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 하었는데 박물관 이름이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곳이었다. 처음에 이름만 듣고 "왜 이렇게 지었을까?"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다.

박물관 안 그림들은 착시 현상으로 그려져 있었고 사진을 찍으면 입체적인 느낌 때문에 신기했다.

그리고 런닝맨을 찍었던 에코랜드 테마파크에 갔다. 기차를 타면서 여러 곳을 둘러 볼 수 있는 공원이었다. 공원도 넓고 자연은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은 곳이었다.

8시에 숙소에도착해 저녁을 먹고 바로 팀별 활동을 했다. 전에 찍었던 사진을 모두 인화해 앨범 만들기를 했다. 견학한 곳이 많다보니 사진들도 많았다.



사진들을 앨범 속에 정리하고 나니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다.

8월 24일 아침, 일정이 바쁜 관계로 6시에 기상하여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하고 8시 20분에 곱뜨락아티로 출발하였고 곱뜨락아티에 도착하여 천연비누를 만들고 버스로 40분 정도 이동하여 식당에 도착하였다. 제주도에서 먹는 마지막 점심이라 생각하니 음식들이 더욱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창밖에 구름을 보더니 어느새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에서 부산 전체를 구경하고 흠플러스에 들어 일본친구들과 쇼핑도 하였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하여 일본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이번 한·일청소년 교류 캠프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지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캠프였다.^^



슈퍼배드2를 보고나서

글 문수방 김철영



오늘은 작은사랑 봉사자님들과 영화를 보기로 한 날 이다. 선생님들과 동생들이 함께 진주 MBCINE으로 출발을 하였다.

영화관에 도착하여 표를 받고 슈퍼배드2 포스터 앞에서 동생들과 사진을 찍고 상영관으로 입장하였다. 자리에 앉아 팝콘과 콜라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는 시작되었다.

영화의 내용은 슈퍼 악당에서 딸바보 아빠로 변신한 '그루'는 세 딸, '마고', '에디스', '아그네스'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을 지배하려는 최강 악당 군단이 나타나자, 이들을 상대할 유일한 슈퍼 악당, '그루'가 비밀 요원으로 '악당 소탕 작전'에 투입되고 파트너인 '루시'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니언 군단까지 공격을 받아 보라미니언으로 변하고 만다. 그러던 중 보라미니언을 다시 노란미니언으로 되돌려줄 박사님마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미니언들은 슬퍼했지만 박사님은 다시 돌아왔고 이상한 잼을 만들어 보라미니언들을 다시 노란미니언으로 되돌려주셨다. 그리고 그루와 루시는 결혼을 하면서 끝이 났다.

영화는 언제 봐도 재미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삼성패밀리 뷔페로 가서 스테이크, 알밥 등 음식들을 먹고 후원자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후 동산으로 돌아왔다.



스키캠프를 다녀와서

보현방 유관중



나는 새벽4시에 일어나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집결하였다. 처음만나는 형, 누나들이기에 말을 걸지 못하였다. 그런 상태로 우리는 강원도까지 갔다.

신나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용평리조트에 도착해 로비에 모였다. 거기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친구들과 동생 그리고 형, 누나를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바로 친해질 수 있었고 그 이유는 동보원 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키캠프에서 호태라는 친구를 만났고 우리는 같이 다녔다.

우리는 로비에서 스키복과 장갑을 받고 동보원 형들과 같은 방이 되었다. 짐을 풀고 난 뒤 스키를 타러갔다. 처음에 넘어지는 법, A자 등 많은 것을 배웠지만 어려웠고 평지에서조차 타기 힘들었다.

타는 법을 배우도 난 뒤 처음엔 초급, 조금 나아가 중급까지 갔다. 초급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짜릿하기도 했었다. 초급을 어느 정도 타다보니 중급도 탈 수 있을 것 같아 중급으로 올라가 타고 내려오니 초급이 평지처럼 느껴졌다.

신나게 스키를 타고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기 위해 로비로 갔다. 심폐소생술의 인형이름은 애니였다. 이름을 듣고 '재미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레크레이션을 하고 방에 돌아와 형들과 놀다가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스키를 타러 나갔고 아침에 스키를 타니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았다. 스키를 타는 동안에 우리는 추운 것도 잊어버리고 탔다. 점심을 먹고 스키를 또 타러 갔고 저녁에는 수영장 대신에 야간 스키를 탔다. 중급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코스에 갔었고 정말 재미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스키를 타고 로비에서 폐막식을 하였다. 이번 스키캠프를 통해 친구들도 사귀고 스키실력도 늘었다. 운동을 하니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다음에도 가고 싶다.



대전 오-월드를 다녀와서

글 안양원 김백천



며칠 전부터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조사하고 그 중 대전에 있는 오-월드라는 놀이공원으로 정해 졌다. 처음에 우리가 정했던 곳이 아니어서 기분이 좋지 만은 않았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출발을 하였다.

2시간에 걸쳐 대전 오-월드에 도착하였고 자유이용권을 팔막에 찬 뒤 단체 사진을 찍고 점심을 먹으로 갔다. 점심을 빨리 먹고 놀이기구를 탈 생각에 햄버 거를 허겁지겁 먹고 나왔다.

햄버거를 다 먹고 밖으로 나와 마지막 인원 점검 하고 미리 정해준 조원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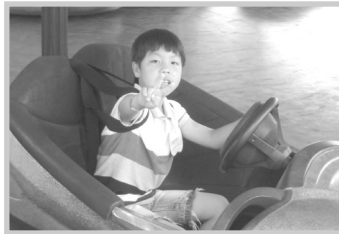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

처음은 바이킹으로 시작했고 내가 탔던 바이킹 중에 높이가 가장 낮아 시시켰다.

두 번째로 자이언트드롭이라고 지상 54M까지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는 놀이기구였는데 한 번도 타

보지 않아 한 번 도전을 해보기로 하였 다. 자이언트드롭을 타기 위해 자리에 앉았고 서서히 올라 갈 때 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빠르게 내려 올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끝 나고 자이언트드롭에서 내리는 순간 다 리에 힘이 풀렸고 무서웠다.

그리고 후름라이드라는 물배가 있는 데 기다리는 시간만 2시간이 더 걸렸고 기다리면서 더운 날씨 때문에 땀을 아주 많이 흘렸다. 기다리면서 '나갈까?' 하 는 생각도 했지만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더 기다렸고 내 차례가 되어 후름라이드 를 탈 수 있었다. 기다린 만큼 재미있었



고 무더운여름을 한 번에 날려버릴 만큼 시원 했다.

그걸 타고 나서 시간이 10정도 남아 선생님들과 바이킹을 마지막으로 탔고 타면서 소리도 지르며 신나 게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대전 오-월드에서 내려오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저녁을 먹고 집에 도착을 했다.

다음에 기회가 올지는 모르지만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정말로 재밌다.



아침식사 꼭 먹어야 건강해져요 *^^*

글 영양사 김은정



♥ 아침식사의 의미

- 저녁식사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는 뇌 활동 에너지인 포도당이 소모되므로 아침식사로 포도당을 보충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혈액으로 포도당을 공급하지만, 아침이 되면 고갈이 됩니다. 이럴 때 장시간의 금식(fast)을 깨뜨리는 것(break+fast)입니다.

♥ 아침밥을 왜 꼭 먹어야만 할까요?

1. 잠자는 중에 써버린 열량(300~500kcal)을 보충해 줘요!
- 아침을 거르면 오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여 피로감을 느끼고 식은땀이 나며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 뇌 활동에너지 부족으로 우리 몸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의욕이 없어집니다.
2.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줘요!
- 아침을 거르면 뇌의 유일한 영양소인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어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를 잘 할 수가 없고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다고도 합니다.
※ 수능점수와 아침밥과의 연구에서도 아침밥을 먹은 사람들이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네요.
3.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해 줘요!
- 아침을 거르면 음식이 장으로 보내지지 않게 되어 연동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변비에 걸릴 수 있어요.
4. 비만을 예방해 줘요!
- 공복(밥을 먹지 않아 위가 비어있는 것)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먹은 열량을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변화가 생겨서 비만이 될 수 있어요.
- 아침을 안 먹는 것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이어져 과식, 야식, 결식 등의 악순환이 되고 장기적인 영양불균형을 됩니다.
- 군것질이 늘고,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5. 어린이 성장을 도와줘요!
- 아침을 거르면 부족한 영양분을 근육과 뼈 등의 기관에서 빼내어 쓰게 되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6.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생기는 소화불량, 위염 등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이렇게 해요~

-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식사할 시간을 갖습니다.
 - 체조 등 간단한 움직임으로 입맛을 돋굽니다.
 - 밥과 반찬 외에 죽 등 위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으로 먹어도 됩니다.
 - 빵과 우유, 시리얼과 우유를 먹습니다.
 - 우유나 떠먹는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 먹습니다.
- 밥을 싫어하는 아이를 위한 즐거운 밥상
- 좋아하는 맛을 살려주세요.(짜장맛, 카레맛, 케찹소스 활용)
 - 싫어하는 채소는 아주 작게 잘라주세요.
 -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 주세요.
 - 적은 양부터 또는 좋아하는 음식과 격일로 바꾸어 먹여 보세요.



아토피를 이기자

아토피(atopy)란 용어는 그리스어로 '이상한' 또는 '부적절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병의 대한 분명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봅니다.

우리 몸은 소화, 영양, 호흡, 순환, 배설 등의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 이물질(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방어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체 내부와 외부 기능이 동시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토피가 발생하는데 유전성이 있어 부모가 특이체질(알레르기성 체질)일 경우, 임신 중의 감염성 질환, 자극적인 음식, 화학약품 등의 복용으로 태아의 혈액 중에 독소가 잠재되어 있다가 출생 후에 다른 요인(감기, 음식)들과 결합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토피에 있어서 음식에 대한 주의는 체질을 떠나 기본입니다. 음식은 자연식으로 해야 하며 인스턴트식품, 화학조미료는 금해야합니다. 또한 채소의 경우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된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에는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땅콩, 우유, 두유, 밀가루, 생선 등이 있습니다.

1. 정성으로 만든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요.
2. 기름기 많은 것과 각종 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3. 수입농산물은 피하고 제철농산물과 비교적 무농약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4. 100°C이상에서 튀기거나 구운 밀가루 음식은 먹이지 않아야 합니다.
5. 외식을 자제합니다.
6. 생선요리는 가급적 찜, 국, 조림으로 먹습니다.
7. 수입 농산물을 피해야 합니다.
8. 설탕을 자제해야 합니다.
9. 아토피가 심한 경우 가급적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면 어김없이 가는 겨울산행!
이번엔 무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정상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서 으샤으샤~



작은사랑의 봉사자님들이
부곡하와이 겨울축제에
보리수동산 아이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눈썰매도 신나게 타고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상 앞에서 기념사진도 찰칵



아이들의 새로운 생활관!
아파트 형식의 선재관이 드디어 완공되어
아이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리수동산의 아기공주 민경이가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향기 자원봉사자님들이 방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기도 가르쳐 주시고 어린 친구
들을 위해 산책도 해주셨습니다.





문수방 아동들이 필요한 책들을 직접 고르고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몬스터대학 교라는 영화도 보고 왔어요, ^^



보리수동산에서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이들이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귀엽고 멋진 공연도 보여드렸던 뜻 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이 보리수동산을 방문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과 문화예술을 자극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 주셨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후원해 주신덕분에 우리 아이들과 대전 오-월드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놀이동산에 모두들 신났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개그맨들을 실제로 보니 정말 좋았어요,
개그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개그맨들의 멋진
공연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릴 신나는 부곡하와이로 떠나
요~ 작은사랑의 봉사자님들과 수영도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스
트레스와 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_<



과학堂的 교실에서 핸드폰 고리도 만들고 내 심장소리도 듣는 등
새로운 지식도 얻고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산오토캠핑장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캠핑카
에서 하루를 보낼 생각에 설렘 가득하고 바비큐파티 시작~





동지팥죽 만드는 날!! 우리 손으로 새알도
빚고 팥죽 끓이는데 저어보기도 하고
어디서도 하지 못할 경험을 해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햇빛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썬스프레이도 만들고 감기에방을 위한 스프레이 등
천연 제품을 만들어 자외선과 세균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거예요.



아동학대 추방결의 대회에 보리수동산
풍물패도 참석을 하여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돌아온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최,강기,애 우리는 기아타이거즈~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된 최,강기,애 타이거즈여
~하며 열심히 응원가를 부르며 기아타이
거즈를 응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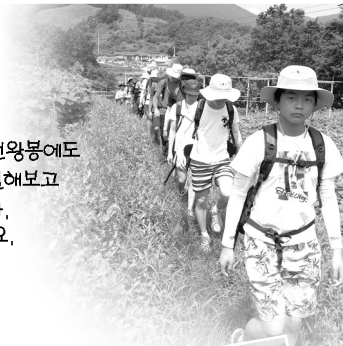
김장축제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김
치도 담그고 봉사자님들을 위해 어묵탕도 끓여
주고 선생님들을 도와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특하죠? ^^v



보리수동산 가족들과 다 함께 2박3일 하계캠프를 떠났어요.
직접 요리도 해보고 선생님들과의 신나는 물싸움도 하고
즐거운 캠프로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STX국토대장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천왕봉에도
올라가고 요리할 재료도 직접 손질해보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었습니다.
내가 한 요리라 더 맛있었어요.



2013년 마지막 달 우리들의 학예회인 송년축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준영이도 멋진 공연으로 모든
사람의 웃음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마음 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1월 최상태 김보열 조점이 황종관 장시경 문갑례 진순옥 구미자 박종문 이영미 최은경 이윤봉 정용훈 심은숙 권도는 이승미 노영도 김애숙 이영자 정정자 정숙향 이미영 윤정향 이두래 변재범 김주애 제금자 이용성 조원익 홍세표 이지선 가출순 정심아 김현주 안응호 이봉자 강옥환 박국원 청호건설(주) 이상근 박종식 김성호 홍순화 홍은정 김순화 임영연 조필준 양수미 구영숙 우영숙 최보연 윤현식 박우찬 김주희 김진영 정귀남 김정옥 하부영 장영수 강정덕 서진호 김유식 조재영 강효상 조성진 이우중 윤정숙 최유리 박덕해 김진규 강성진 윤라미 배경조 서영문 박지훈 최연익 방이호 정미순 신창환 박향진 (주)동명특수강 공인배 이창식 정성종 김민자 박태순 김은희 진상복 정유섭 김해원 이상태 장인옥 제낙울 고난조 장원주 김순희 전부근 강대균 명정식 임화연 남경남 김희정 김순찬 김갑연 김종진 신현우 구나운 김순애 윤복연 한학조 윤석근 박귀은 서도순 이영수 정정숙 대각디앤씨 김옥순 왕한석 노춘식 문상필 김희정 김양현 최임숙 이태현 허미라 김필성 김수동 황정숙 이용호 이경순 윤정수 장연주 김순점 이충림 명곡목재 장형선 김영환 안미경 이민자 법장사 하현희 이윤봉 권옥순 윤현순 박재홍 서양순 정정순 양미모 김인호 이창훈 허혜자 김태형 정해숙 제성호 정숙자 이영숙 이혜경 김무립 박현기 홍세표 박경자 심은숙 조민주 이계순 이현숙 오유민 전억수 박정숙 백영현 이희연 신종준 광진중 이태호 박정현 이승진 우태영 항행자 양수미 이지선 가순출 김재룡 문경련 김옥화 손윤기 이미애 윤정자 김재호 하정자 신경수 김순권 김선숙 노영도 황진두 주경선 윤지희 이우중 구영숙 우영숙 차기훈 김향숙 이향래 홍정숙 김용진 최인선 김용호 이상훈 김문기 이수미 박우진 안응호 김애숙 임상보 강연옥 정성종 윤정숙 최유리 황기석 배상림 김수정 박은정 주신옥 성양원 광선자 김혜숙 치마저고리 이수미 운홍사 박우찬 이봉자 최문정 이재정 김희정 김민자 박태순 (주)동아기업 김말순 성우근 김민호 김현식 김소연 진재분 이미경 이무제 이용진 정인숙 강성진 김주희 추상근 박현숙 문상필 김순찬 김갑연 오경옥 이상근 윤정에 최홍래 김석연 김인수 권종영 한선희 황희석 김영완 조원익 정유섭 윤라미 김영길 이복기 임박순 김희정 김양현 호전종합건설 조정남 정지숙 김현섭 김보열 한판현 강갑순 정창민 박종근 이현순 조원익 구나운 김해원 김대희 김시달 배상호 이민자 한상근 정중숙 이춘달 정영숙 이재동 최연경 이순복 백장흠 심영숙 강쌍범 설종열 조필준 허미라 김순애 김선희 유상우 이영숙 이혜경 법장사 이계숙 이숙이 최인미 윤상일 안규철 김설영 성명숙 하윤숙 주동강 김승선 조성진 권옥순 김필성 성미란 김화숙 이호길 이승진 김무립 강현성 류석열 김연순 허광도 김태환 정의순 박정숙 김중선(제이에스무역) 이상백 (유)한국산업 이태현 박경자 윤현순 김성숙 맹길재 박정현 황진두 김민중

2월 강옥환 서영문 정숙향 김수정 윤정향 장연주 진순옥 강대균 명정식 이용성 박우진 김현주 박우찬 김진영 정귀남 조점이 성우근 서도순 이영수 변재범 광선자 송현도 공인배 김승선 윤현식 강성진 배경조 박국원 이영자 박경희 방이호 이창훈 이순복 대각디앤씨(주) 송윤희 임화연 안성훈 김진규 정유섭 차태선 문경련 청호건설(주) 정지숙 오유민 최인선 신창환 정정숙 조재영 왕한석 정인숙 진상복 구나운 이상태 김보열 허혜자 이미영 김민호 윤정자 전부근 박향진 김옥순 강효상 이태호 신현우 허미라 박재홍 배상림 김성현 이상근 김현섭 박정숙 김설영 김재호 명곡목재 제성호 경남은행 이태현 권옥순 차기훈 정정자 이향래 박종식 허광도 김보열 홍순화 김태형 정해숙 장형선 박현기 이윤봉 박경자 조민주 장인옥 최인미 주신옥 강정덕 김석연 서진호 하정자 신종준 이용진 항행자 홍세표 이지선 김재룡 황정숙 김연순 하부영 윤정수 성양원 홍은정 이희연 신경수 이수미 윤지희 양수미 구영숙 김수동 서양순 윤정에 양미모 최홍래 김소연 백장흠 김혜숙 김문기 이수미 강연옥 이우중 황정훈 김향숙 정정순 박귀은 장원주 정미순 정의순 이상훈 황희석 사회복지법인 이재정 정성종 (주)동아기업 이계순 김정옥 박은정 이미애 이두래 권종영 이미경 치마저고리 김금자 박현숙 김희정 오경옥 이춘달 정영숙 고난조 김인호 김순희 강갑순 한선희 이무제 한복남 이효석 문상필 정중숙 조정남 김옥화 손윤기 전억수 최연경 진재분 정창민 노주현 안성훈 백금옥 임박순 윤복연 김말순 박지훈 이경순 김용진 안규철 김용호 심영숙 박종근 (유)한국산업 이복기 안미경 이계숙 이상근 이현숙 홍정숙 김현식 김성호 성명숙 박종문 강쌍범 최은경 김시달 최숙자 호전종합건설 이충림 윤석근 이재동 김명순 김인수 구미자 제금자 주동강 이창식 유상우 박정현 한학조 류석열 황종관 윤상일 한판현 강창순 김주애 양채심 이상백 김영환 맹길재 노영도 최상태 이숙이 장영수 김석순 최연익 문갑례 박정숙 (주)동명특수강 이영미 김영환 이승미 안응호

3월 강옥환 서영문 조점이 이상근 허광도 최연경 신창환 제금자 이영미 안성훈 김해원 최문정 백금옥 임박순 김희정 김무립 이혜경 이상태 정귀남 정숙향 이미영 김현섭 이영수 전부근 김중선(제이에스무역) 이용성 조원익 이도일 김영길 이복기 배상호 이민자 김민중 김진영 박국원 청호건설(주) 박종식 김형열 정미순 제낙울 조재영 송병훈 조필준 김순애 이태희 김시달 안미경 이혜경 우태영 배경조 김보열 허혜자 손윤기 윤정수 김석연 김설영 명정식 임영연 조성진 김필성 김선희 유상우 최숙자 이승진 주경선 최상태 정정자 김수정 이경순 최홍래 김소연 홍순화 (주)동명특수강 강효상 이재현 윤현순 강향숙 맹길재 이영숙 황진두



마음 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임상보 김수동 장인옥 장영수 홍정숙 장원주 김순희 서진호 명곡목재 공인배 박우진 심은숙 성미란 이승미 박정현 김계동 최문정 김재룡 제낙울 성우근 주신옥 전영수 윤정자 정의순 김옥순 임화연 윤정숙 가순출 김성숙 김현주 노영도 김애숙 추상근 박재홍 황정숙 이향래 고난조 김인호 박정숙 정정숙 정해숙 왕한석 김민자 우영숙 정심아 윤현식 안용호 이봉자 김영길 차기훈 문경련 정영숙 하부영 최연익 이창훈 대각디앤씨(주) 신종준 제성호 김순찬 최유리 최보연 김진규 박우찬 김주희 이대희 조민주 김향숙 이현숙 양미도 이미애 성양원 김재호 신경수 장형선 김희정 박태순 박덕해 진상복 강성진 김순애 강향숙 황정훈 배상립 김옥화 박귀은 김용진 김인수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치마저고리 광진중 이민자 김갑연 김은희 신현우 정유섭 김필성 성미란(주)동아기업 서양순 김정옥 박은정 박진희 김성호 김태형 이무제 노주현 이혜경 김양현 김종진 이태현 구나운 윤현순 김성숙 오경옥 이숙이 정정순 이재동 이영자 안규철 이희연 김민기 김영완 이승진 한상근 최임숙 이윤봉 허미라 심은숙 정심아 호전종합건설 이상근 박치훈 윤상일 김명순 강장순 하정자 황희석 (유)한국산업 황진두 법장사 하현희 홍세표 박경자 가순출 최보연 정정숙 김말순 윤석근 장시경 김현석 강정덕 이상훈 광진중 김선숙 김계동 김무립 박현기 양수미 이지선 우영숙 박덕해 김순점 조정남 최인미 서도순 이두래 문갑래 이미경 박종근 한복남 김애숙 김민중 강은옥 이우종 구영숙 박태순 김은희 윤복연 이춘달 김연순 윤정향 최인선 진순옥 한선희 강쌍범 이창식 이봉자 우태영 이재정 정성중 윤정숙 김양현 김종진 이계숙 이충립 황종관 방이호 김보열 범재범 정창민 주동강 김영환 김주희 주경선 박현숙 김희정 김민자 한상근 최임숙 한학조 류석열 정지숙 김민호 장원주 이순복 박종문 이상백 한복남 윤라미 임상보 이효석 문상필 김순찬 법장사 하현희

4월 홍은정 차기훈 황정숙 김옥화 최홍래 김형열 김소연 김재호 김태형 신종준 이수미 백금옥 안미경 백장훈 조민주 서양순 성우근 고난조 윤정향 정미순 정정숙 하정자 신경수 이수미 이복기 이영숙 강갑순 김재룡 문경련 이향래 손윤기 김현석 김순희 박정숙 이상훈 김문기 노주현 김시달 박정현 강옥환 김수동 배상립 김수정 김인호 윤정숙 김인수 강갑순 이미경 치마저고리 광진중 유상우 노영도 권종영 황정훈 이영자 정지숙 양미도 김석연 강정덕 성명숙 한선희 이무제 김승선 맹길재 안용호 성명숙 (주)동아기업 이숙이 김연순 이경순 김보열 강외순 광선자 정창민 황희석 최은경 이승미 박우찬 진재분 호전종합건설 김향숙 최인미 전영수 문갑래 윤석근 김용호 이희연 박종근 이창식 김현주 강성진 강대균 오경옥 류석열 황종관 홍정숙 안규철 이순복 김주애 박종문 강쌍범 김영환 윤현식 정유섭 광선자 김순점 김말순 이미영 김민호 최연경 변재범 강대균 제금자 주동강 공남이 진상복 구나운 김용호 윤복연 이춘달 이상근 박은정 이두래 진순옥 구미자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상백 정숙자 신현우 허미라 김주애 이계숙 이상근 정영숙 방이호 김성호 신창환 백장훈 이용진 이영미 이태호 이태현 정용훈 구미자 정정숙 정숙향 장시경 윤상일 장영수 김민전 한판현 이수미 이용성 이태호 이윤봉 이지선 박정숙 서영문 조점이 박종식 김현섭 이창훈 전부근 대각디앤씨(주) 이수미 강효상 한복남 홍세표 구영숙 김진영 정귀남 청호건설(주) 제낙울 이재동 성양원 이충립 (주)동아기업 (주)동명특수강 공인배 김선숙 양수미 배경조 박국원 조정남 백영현(고성) 허광도 이영수 홍순화 김유식 명정식 임화연 박현기 이우종 최상태 정정자 김정옥 하부영 김용진 장원주 김설영 김순점 조재영 왕한석 광병대 김희정 박향진 김보열 박치훈 이미애 허혜자 박정숙 정의순 박향진 김옥순 제성호 윤지희 문상필 한판현 장인옥 이현숙 최연익 서도순 최인선 서진호 진재분 명곡목재 장형선 이재정 임박순 이상태 한학조 정정순 박귀은 장원주 윤정자 강창순 권종영 정해숙 이용진 박현숙 백상호

5월 강옥환 이계숙 류석열 이향래 서도순 김보열 성양원 강갑순 정창민 강쌍범 김승선 이봉자 김영길 이효석 백상호 김순찬 법장사 하현희 최상태 신동순 이숙이 장영수 윤정향 안규철 정미순 허혜자 박종문 주동강 이창식 김주희 이대희 백금옥 안미경 김희정 김무립 이혜경 홍은정 박재홍 김말순 김수정 방이호 문갑래 이영수 대각디앤씨(주) 심영숙 이영미 김영환 김순애 강향숙 이복기 최숙자 이민자 김민중 손해식 김진영 송외순 이춘달 손윤기 주신옥 최연경 김순희 박향진 제금자 이상백 조성진 김필성 성미란 김시달 이영숙 이혜경 우태영 전평일 배경조 주신옥 정숙향 박은정 제낙울 이두래 신창환 박정숙 양채심 이용성 조필준 윤현순 김상숙 유상우 박정현 이승진 주경선 이영자 정정자 조점이 홍정숙 김민호 김성호 김인수 김재호 김순화 이태주 조원익 심은숙 정심아 맹길재 노영도 김계동 임상보 안정임 서영문 청호건설(주) 정정순 김현섭 강정덕 서진호 권종영 조재영 장형선 조원익 가순출 최보연 이승미 안용호 김애숙 최문정 김석순 정귀남 박치훈 김옥화 허광도 이순복 전부근 진재분 (주)동명특수강 임영연 정숙자 우영숙 박덕해 윤현식 박우찬 이봉자 추상근 김수동 박국원 김정옥 이현숙 김용진 최인선 정의순 이충립 명정식 임화연 최은경 박태순 김은희 진상복 강성진 김해원 김영길 조민주 김보열 윤석근 이재동 장원주 진순옥 한판현 김유식 명곡목재 강효상 박우진 김양현 김종진 신현우 정유섭 김순애 이대희 차기훈 장인옥 강창순 윤상일 김형열 김설영 정정숙 박옥립 정해숙 공인배 윤정숙 한상근 최임숙 이태현 구나운 김필성 강향숙 이상태 한학조 최인미 장시경 윤정숙 박정숙 구미자 김해숙 신종준 노주현 김민자 법장사 하현희 이윤봉 허미라 윤현순 성미란 김재룡 서양순 김연순 김명순 최홍래 장원주 광선자 김태형 김옥순

마음 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왕한석 김순찬 김무립 이해경 홍세표 권옥순 심은숙 김성숙 황정훈 황정숙 황종관 정영숙 전역수 윤정자 강대균 이희연 신경수 제성호 김희정 김민중 손해식 양수미 박경자 가순출 정심아 (주)동아기업 문경련 고난조 하부영 김인호 이창훈 성명숙 하정자 김문기 광진중 이민자 우태영 박현기 이우중 정용훈 우영숙 최보연 호전종합건설 김향숙 박귀은 박종식 이미애 변재범 김주애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치마저고리 이용진 이해경 주경선 광병대 정성종 이지선 최유리 박덕해 오경옥 배상림 양미모 정지숙 최연익 홍순화 홍은정 이상흠 이무제 이수미 이승진 임상보 윤지희 김희정 구영숙 박태순 김은희 정중숙 이상근 이경순 이미영 김현석 김순점 김용호 이미경 황희석 이수미 황진두 최문정 이재정 문상필 윤정숙 김양현 김종진 윤복연 조정남 성우근 이상근 김석연 김소연 백장흠 한선희 박종근 박우진 김애숙 추상근 박현숙 임막순 김민자 한상근 최임숙

6월 강옥환 서영문 김말순 손윤기 김형열 김현석 신창환 제금자 공인배 박현숙 김희정 김진영 박국원 김옥화 박은정 장원주 문갑례 전부근 조재영 임영연 이효석 문상필 배경조 장인옥 이숙이 이경순 윤정수 이영자 박재홍 (주)동명특수강 임화연 백금옥 임막순 최상태 한학조 김수정 양미모 주신옥 정미순 홍순화 명정식 제성호 이복기 백상호 이상태 황정숙 윤석근 홍정숙 최홍래 김순희 김설영 김옥순 장형선 김영재 안미경 차기훈 문경련 이현숙 고난조 최연익 장연주 서진호 명곡목재 광진중 김시달 최숙자 조민주 배상림 장영수 윤상일 이영자 이영수 정의순 정해숙 노주현 유상우 이영숙 김수동 김향숙 조점이 이재동 백영현 최인선 대각디앤씨(주) 신종준 이영미 맹길재 박정현 김재룡 청호건설(주) 정숙향 장시경 김인호 이창훈 정정숙 신경수 한복남 이승미 노영도 황정훈 김정옥 허혜자 서양순 김보열 윤정자 김혜숙 김문기 김승선 윤현식 안용호 (주)동아기업 이춘달 정지숙 서도순 김석연 박정숙 김태형 치마저고리 이창식 김진규 박우찬 호전종합건설 성우근 최인미 윤정향 전역수 김소연 하정자 이무제 김선숙 진상복 강성진 오경옥 류석열 김연순 하부영 이두래 성양원 이희연 황희석 김영환 신현우 정유섭 윤복연 제낙울 황종관 박귀은 이미애 김인수 이미경 박종근 정숙자 이태현 구나운 정중숙 이상근 이상근 김민호 안규철 강정덕 정창민 강쌍범 박현기 이운봉 허미라 김보열 이향래 이미영 방이호 김성호 이순복 한선희 주동강 광병대 홍세표 박경자 정정자 조정남 정영숙 김현섭 김용진 변재범 심명숙 이상백 항행자 양수미 정용훈 이계숙 정정순 이충림 허광도 김석순 진순옥 이상흠 이용성 윤지희 이우중 이지선 정귀남 박치훈 박종식 강창순 최연경 제승운 박종문 강효상 이재정 정성종 구영숙

7월 강갑순 박재홍 한학조 박치훈 백영현 김현섭 이창훈 김설영 대각디앤씨(주) 명정식 임화연 김영환 김필성 김선희 이복기 안미경 황진두 최문정 김용호 김재룡 서양순 이향래 이경순 윤상일 윤정자 정의순 김순점 조재영 강효상 공남이 윤현순 강향숙 김시달 박정현 김애숙 김명길 강대균 차기훈 이영자 정정순 고난조 허혜자 박정숙 홍순화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태주 공인배 정숙자 심은숙 성미란 유상우 노영도 이봉자 이대희 광선자 조민주 문경련 성우근 김인호 장원주 최인선 서진호 김태형 명곡목재 제성호 김선숙 가순출 김성숙 맹길재 안용호 김해원 김선희 성명숙 홍은정 배상림 김옥화 손윤기 김현석 성양원 김재호 하정자 김옥순 장형선 박우진 우영숙 정심아 이승미 박우찬 김순애 강향숙 구미자 김수동 황정숙 이현숙 주신옥 윤정수 윤정에 정정숙 이상흠 정해숙 이용진 김승선 최유리 최보연 김현주 강성진 김필성 성미란 김주애 황정훈 이충립 장영수 방이호 김형열 김소연 김용호 정창민 신종준 이수미 윤정숙 박태순 박덕해 윤현식 구나운 윤현순 김성숙 박정숙 (주)동아기업 류석열 정지숙 홍정숙 서도순 정미순 강갑순 한선희 신경수 이수미 김민자 김양현 김은희 진상복 허미라 심은숙 정심아 백장흠 오경옥 이상근 제낙울 정역수 윤정향 김순희 백장흠 심명숙 김문기 노주현 김순찬 한상근 김종진 신현우 박경자 가순출 최보연 강옥환 호전종합건설 이춘달 김수정 하부영 김석연 장연주 성명숙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치마저고리 광진중 김희정 법장자 최임숙 이태현 정용훈 우영숙 박덕해 배경조 이계숙 조정남 최인미 최홍래 김보열 김인수 광선자 박종문 이무제 한복남 이민자 김무립 하현희 이운봉 이지선 최유리 김은희 최상태 윤복연 김향숙 김연순 박귀은 안규철 강창순 강대균 제금자 황희석 박우진 이해경 김민중 손해식 홍세표 구영숙 박태순 김종진 권종영 정중숙 김말순 황종관 최연익 김용진 이순복 김주애 이마트단체지원금 강쌍범 김승선 이승진 우태영 전평일 양수미 윤정숙 김양현 최임숙 박향진 정정자 이숙이 이미영 이미애 최연경 진순옥 구미자 양재심 박종근 이원형 황진두 주경선 박현기 이우중 김민자 한상근 하현희 진재분 정귀남 조점이 이상근 박은정 문갑례 변재범 홍정은 김순화 주동강 최운경 김계동 임상보 광병대 정성종 김순찬 법장자 손해식 김재호 박국원 정숙향 정영숙 김민호 이두래 제승운 박정숙 이용진 이상백 조원익 김애숙 최문정 윤지희 김희정 김희정 김무립 전평일 한판현 서영문 청호건설(주) 박종식 양미모 김성호 신창환 권종영 이수미 이영미 조필준 이봉자 추상근 이재정 문상필 이민자 우태영 이상태 김보열 윤석근 장시경 허광도 강정덕



마음 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전부근 박향진 이수미 이용성 조성진 김해원 김영길 박현숙 임박순 이해경 주경선 김순점 장인옥 김정옥 함께가는길 이재동 이영수 한판현 진재분 (주)동명특수강 임영연 이창식 김순애 이대희 이효석 백상호 이승진 임상보

8월 강옥환 서영문 이충림 정영숙 김민호 최연경 제승운 홍은정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임화연 이재정 박정현 김애숙 최문정 심영란 정귀남 류석열 이상근 김형열 문갑래 신창환 대각디앤씨(주) 동명특수강 임영연 박현숙 노영도 이봉자 추상근 배정조 박국원 윤석근 홍정숙 방이호 변재범 강정덕 권종영 명정식 강효상 백금옥 안용호 김해원 김영길 최상태 문경련 제낙울 주신옥 허광도 이창훈 전부근 진재분 명곡목재 공인배 이복기 박우찬 김순애 이대희 김수동 김보열 조점이 양미모 김현섭 윤정에 홍순화 박향진 정해숙 왕한석 김시달 강성진 김필성 김선희 이상태 배상림 정숙향 하부영 김용진 김소연 김설영 김재호 신종준 제성호 유상우 정유섭 윤현선 강향숙 김재룡 정정자 이현숙 박은정 최홍래 이영수 서진호 김태형 김옥순 장형선 맹길재 구나운 심은숙 김성숙 차기훈 이영자 김옥화 고난조 윤정수 정미순 정의순 이희연 신경수 이수미 이승미 허미라 가순출 정심아 조민주 장인옥 최인미 이경순 장원주 성양원 정정숙 이희연 김민기 이수미 윤현식 박경자 우영숙 최보연 황정훈 서양순 김연순 손윤기 전역수 이두래 한판현 하정자 치마저고리 이용진 김진규 정용훈 최유리 박덕해 (주)동아기업 김향숙 정정순 이재동 김민호 이순복 강대균 이상훈 황희석 노주현 이태현 이지선 박태순 김은희 호전종합건설 청호건설(주) 정지숙 윤상일 이미에 김순희 강갑순 김혜숙 이무제 최운경 이운봉 구영숙 김양현 김종진 오경옥 조정남 장영수 정종동 김명순 장연주 백장흠 이미경 박종근 이창식 홍세표 윤정숙 한상근 최임숙 정중숙 이춘달 황종관 정원진 김석순 진순옥 김용호 한선희 강쌍범 김영환 양수미 김민자 법장사 하현희 윤복연 이상근 김수정 장시경 김현식 윤정자 성명숙 정창민 주동강 정숙자 이우중 김순찬 김무림 이해경 이계숙 박지훈 이향래 윤정향 허혜자 최인선 김주애 박종문 이상백 이재현 정성중 김희정 김민중 손해식 한학조 김말순 성우근 서도순 김석연 박정숙 광선자 심영숙 이영미 박현기 문상필 이민자 우태영 운홍사 박재홍 김정옥 박종식 박귀은 김보열 김성호 구미자 제금자 이용성 광병대 임박순 이해경 주경선 전평일 황정숙 이숙이 이미영 최연익 안규철 김인수 박정숙 양채심 이태주 윤지희 이영숙 황진두 임상보

9월 강영철 서영문 제낙울 홍정숙 김석연 이두래 전부근 권종영 명정식 공인배 광병대 정성중 강옥환 정귀남 박지훈 김형열 김민호 김성호 홍순화 김재호 (주)동명특수강 임화연 항행자 김희정 김진영 박국원 김말순 전역수 안규철 문갑래 서진호 진재분 김문기 임영연 윤지희 문상필 배정조 김보열 이숙이 양미모 이재동 이영수 김설영 정정숙 명곡목재 제성호 이재정 임박순 최상태 정정자 조점이 김보열 허광도 김순희 구미자 김순화 정해숙 장형선 박현숙 백상호 김순점 장인옥 정숙향 최연경 윤상일 장연주 박정숙 김태형 신종준 이용진 이효석 안미경 이상태 한학조 이영자 주신옥 김현섭 이창훈 김주애 이희연 김옥순 이수미 이복기 이영숙 김수동 황정숙 청호건설(주) 박은정 김용진 박정숙 백장흠 하정자 신경수 이수미 김영재 박정현 김재룡 문경련 이현숙 방이호 박귀은 윤정자 강갑순 이상훈 치마저고리 노주현 김시달 노영도 차기훈 배상림 이향래 김민호 윤정향 최인선 김용호 이미경 광진중 김선숙 유상우 안용호 조민주 김향숙 정정순 최인미 정영숙 김소연 강대균 한선희 이무제 박우진 맹길재 박우찬 박재홍 서양순 성우근 김연순 이미영 윤정에 성명숙 정창민 황희석 김승선 이승미 강성진 황정훈 윤석근 김옥화 하부영 장원주 성양원 광선자 심영숙 강쌍범 최운경 윤현식 정유섭 (주)동아기업 김정옥 정지숙 박종식 김현식 김인수 강정덕 박종문 박종근 이창식 김진규 구나운 호전종합건설 이춘달 장영수 이경순 윤정수 진순옥 대각디앤씨(주) 제금자 주동강 김선숙 이태현 허미라 오경옥 이충림 장시경 이미에 고난조 변재범 김순점 김종선 이상백 조필준 이운봉 박경자 정중숙 류석열 김수정 최홍래 서도순 이순복 박향진 양채심 이용성 조원익 홍세표 정용훈 윤복연 조정남 허혜자 황종관 이상근 신창환 정미순 하윤숙 이영미 김승선 양수미 이지선 이계숙 이상근 손윤기 최연익 김명순 제승운 홍은정 김순화 강효상 박현기 이우중 구영숙

10월 강옥환 이계숙 조점이 강정덕 이재동 안규철 변재범 권종영 명정식 임화연 김영환 황진두 임상보 광병대 이우중 윤정숙 김무림 손해식 김진영 정귀남 정숙향 이미영 윤정수 이두래 진순옥 김순점 김문기 임영연 정병하 김계동 최문정 윤지희 정성중 김민자 김민중 운홍사 심영란 서영문 청호건설(주) 정영숙 고난조 김성호 이순복 강대균 광진중 장형선 조필준 김애숙 김영길 강연옥 김희정 김순찬 우태영 전평일 배정조 김보열 조정남 이상근 최홍래 문갑래 신창환 홍은정 명곡목재 제성호 조원익 이봉자 김선희 이재정 문상필 김희정 주경선 최상태 정정자 윤석근 백영현 박귀은 김석순 제승운 김태형 정해숙 이용진 조필준 김순애

마음 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강향숙 박현숙 임박순 이민자 임상보 한판현 박국원 박지훈 하부영 서도순 박정숙 서진호 김혜숙 신종준 이수미 조성진 김필성 성미란 이효석 백상호 이해경 최문정 이상태 장인옥 김정옥 양미모 장원주 최인선 정정숙 이희연 김옥순 이수미 최효심 윤현순 김성숙 백금옥 안미경 황진두 김영길 이영자 한학조 성우근 박종식 윤정향 윤정자 전부근 하정자 신경수 노주현 박우진 심은숙 정심아 이복기 박정현 김애숙 이대희 차기훈 황정숙 김옥화 이정순 제낙을 성양원 김설영 이상흠 치마저고리 김문기 하상개 가순출 최보연 김영재 노영도 이봉자 김선희 조민주 서양순 이현숙 손윤기 전역수 김소연 김재호 이미경 이무제 박우진 이태호 우영숙 박덕해 김시달 안운호 김해원 성미란 윤복연 문경련 정정순 박은정 이미애 윤정에 광선자 한선희 황희석 최운경 이태호 최유리 김은희 맹길재 박우찬 김순애 김성숙 박재홍 김향숙 이향래 홍정숙 김인호 김순희 김용호 정창민 박종근 이창식 김선숙 박태순 김종진 이승미 강성진 김필성 정심아 김수동 배상립 정지숙 김민호 김용진 이영수 성명숙 심영숙 강쌍범 공남이 윤정숙 김양현 최임숙 김현주 정유섭 윤현순 최보연 김재룡 이상근 장영수 김형열 장시경 이창훈 강갑순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주동강 조성부 김민자 한상근 하현희 윤현식 구나운 심은숙 박덕해 황정훈 이춘달 김수정 주신옥 최연익 장연주 백장흠 박종문 이상백 안호순 김순찬 법장사 이해경 김진규 허미라 가순출 김은희 (주)동아기업 김말순 허혜자 방이호 김현석 김인수 진재분 제급자 이영미 박미영 김희정 김무립 손해식 이태현 박경자 우영숙 김종진 오경옥 이충림 김연순 허광도 김보열 한판현 박정숙 양채심 이용성 조형규 이민자 김민중 윤홍사 이윤봉 정용훈 최유리 최임숙 정중숙 류석열 최인미 윤상일 김석연 정미순 김주애 김순화 강효상 조건영 이해경 우태영 전평일 홍세표 이지선 김양현 하현희 호전종합건설 이숙이 황종관 김현섭 최연경 홍순화 박향진 동명특수강 공인배 정숙자 황진두 주경선 박현기 양수미 구영숙 법장사 이해경

11월 강옥환 서양순 청호건설(주) 이미영 김형열 김보열 홍순화 제급자 이영미 정인숙 양수미 구영숙 한상근 하현희 김진영 정중숙 조정남 박종식 방이호 이영수 서진호 김종선(제이에스무역) 강효상 박우진 이우종 윤정숙 법장사 이해경 배경조 서영문 제낙을 하부영 허광도 이창훈 한판현 양채심 공인배 이태호 정성중 김민자 김무립 손해식 최상태 박국원 김정옥 양미모 김현섭 김석연 정정숙 불명 임영연 박현기 문상필 김순찬 김민중 윤홍사 이상태 정정자 김수정 박은정 최홍래 최인선 대각디엔씨(주) 명정식 임화연 광병대 임박순 김희정 우태영 전평일 대각디엔씨(주) 김보열 황종관 손윤기 윤정수 윤정에 김재호 명곡목재 제성호 윤지희 백상호 이민자 주경선 김수동 장인옥 윤석근 홍정숙 장원주 김소연 하운숙 정해숙 장형선 강연옥 이영숙 이해경 임상보 차기훈 배상립 김연순 이정순 장영수 성양원 김태형 신종준 노주현 이재정 이호길 황진두 최문정 조민주 문경련 정지숙 주신옥 이미애 정미순 하정자 김옥순 정인숙 박현숙 박정현 김애숙 김영길 박재홍 황정숙 최인미 윤상일 전역수 김인수 이희연 신경수 김승선 백금옥 노영도 이봉자 이대희 김재룡 김향숙 성우근 이재동 김인호 김성호 강승옥 치마저고리 최운경 이복기 안운호 김해원 김선희 황정훈 이영자 이향래 강정덕 김용진 안규철 신동순 이무제 이창식 김시달 박우찬 김순애 성미란 (주)동아기업 이춘달 정정순 백영현 김현석 문갑례 이상흠 황희석 조원익 맹길재 강성진 김필성 김성숙 호전종합건설 김말순 이현숙 박귀은 김순희 진순옥 이미경 광진중 조필준 한명근 정유섭 윤현순 정심아 오경옥 이상근 박지훈 윤정향 장연주 이순복 한선희 박종근 조필준 이승미 구나운 심은숙 최보연 윤복연 류석열 김옥화 고난조 최연경 변재범 정창민 강쌍범 조성진 윤현식 허미라 가순출 박덕해 장시경 이숙이 허혜자 서도순 이두래 제승은 심영숙 주동강 남경남 이태현 박경자 우영숙 김은희 이계숙 정숙향 정영숙 최연익 박정숙 신창환 김혜숙 이상백 김영환 이윤봉 정용훈 최유리 김종진 한학조 조점이 이상근 김민호 윤정자 전부근 박종문 이용성 정숙자 홍세표 이지선 김양현 최임숙

12월 이충림 차기훈 문경련 정정순 손윤기 이미애 장연주 김설영 김순화 김문기 광진중 남경남 이승미 정유섭 박정숙 조민주 배상립 이현숙 이정순 최연익 이창훈 서진호 박옥림 명곡목재 장형선 전판식 윤현식 허미라 백장흠 김재룡 이영자 이향래 홍정숙 최홍래 박정숙 한판현 김태형 정해숙 노주현 정병하 김진규 박경자 강갑순 박재홍 강외순 김옥화 주신옥 최연경 윤정자 진재분 이희연 신종준 구창국 주영선 이태현 정용훈 강옥환 황정훈 김향숙 성우근 윤상일 안규철 최인선 강갑순 하정자 김옥순 이용진 남정애 이윤봉 이지선 홍은정 (주)동아기업 장시경 정지숙 이재동 허광도 진순옥 백장흠 이상흠 신경수 이수미 김영환 홍세표 구영숙 강대균 오경옥 윤석근 장영수 (주)동아기업(최상숙) 김용진 김소연 광선자 이미경 치마저고리 이수미 정인숙 양수미 김용호 호전종합건설 김정옥 허혜자 류석열 방이호 변재범 강대균 정창민 이무제 김문기 박우진 이우종 진재분 정중숙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이숙이 김수정 박귀은 윤정수 윤정에 성명숙 박종문 황희석 김승선 박현기 정성종 성명숙 윤복연 이충립 김연순 서도순 장원주 정미순 박정숙 심영숙 박종근 조성부 광병대 문상필 광선자 이계숙 제낙울 최인미 윤정향 문갑례 성양원 김용호 제금자 강쌍범 안호순 윤지희 백상호 김주애 서영문 이춘달 황종관 하부영 김현석 김순희 김주애 김종선 주동강 박미영 이재정 안미경 김진영 박국원 이상근 이미영 정원진 이두래 신창환 홍은정 양채심 이영미 조형규 백금옥 이영숙 최상태 정정자 박치훈 정영숙 정종동 김성호 제승운 김석순 김순화 이상백 조건영 이복기 이호길 박향진 김보열 김말순 이상근 김석연 강정덕 김인수 권종영 이용진 이용성 최은경 김영재 박정현 김설영 장인옥 조점미 박종식 김형열 백영현 배경조 정정숙 이수미 강효상 공납이 김시달 노영도 김순점 한학조 정숙향 양미모 김민호 강현성 전부근 박향진 이수미 공인배 이창식 유상우 안용호 권종영 황정숙 청호건설(주) 박은정 김인호 이영수 김순점 김재호 (주)동명특수강 임화연 이재현 맹길재 박우찬 이상태 서양순 조정남 고난조 김보열 이순복 홍순화 대각디앤씨(주) 명정식 제성호 김선숙 한명근 강성진

개천면어르신사랑마당지정후원금 정토만일봉사회 개천적십자봉사회 이상천(농협) 최원호(청광) 김정옥(햇빛내리는 집) 옥천사(진성스님) 박현갑(영오) 하창식(반성) 김동현(건강원) 한동진(봉치) 강태규(영현) 성우토건 박종만 김용경(두산) 개천청년회장 이철호(옥천) 강종만(산수) 청련암공양주 용영숙(개천우체국) 김제호(노인회) 김종환(부산) 이영갑(조합장) 개천면 청년회 개천면체육회 김병관(가천) 정창민(우체국장) 이강갑(좌이) 이동호(구만) 김재율(북평) 이재환(차치) 김낙문(원동) 개천면 부녀회 김영재(고성) 개천의용소방대 한만일(연화주유소) 강경중(강남) 조매자(봉지) 정복돈(좌연) 김학중(조광) 이동복(HS제성) 김효권(원동) 정오스님(청련암) 최상태(개천초등학교교장) 보명스님 김충환 조영숙 고성금메달스포츠 개천농업경영인회 개천초등학교교동문회 개천자율방범대 이순자(좌연) 허옥희(개천면사무소) 정정배(코데코) 이상근(농협) 탁동열(개천된장) 김태성(농협)



마음 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1월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대한불교조계종 이태수 해피빈 서병찬 서병훈 서지민 공동모금회 박연찬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강현중 정혜숙 김가희 코벤아이러브 허재성 김병찬 김점식 김정수 권용립 최학용 최승희 창원교도소 박선하 한행주 강학이 양선자 배청자 정순자 조혜자 이선자 조윤희 김영남 최일규 김태우 정숙이 손광옥 박미혜 양정화 추광식 안병수 급여 이정철 최규현 정명숙 정남주 치춘자 조경훈 황현숙 후원금 서병찬 서병훈 서지민 조성희 박효주 김해원 최홍석

2월 조재경 정불회 대한미용사회 창원시 마산지부 양동원 서지영 김동준 심필순 건강달리기 강학이 전정이 이태수 김재환 김태우 공동모금회 대한불교조계종 코벤아이러브 김점식 김병찬 서상희 하복순 강현중 박연찬 정혜숙 김가희 허재성 김정수 정차효 최승희 하성용 윤지여 한행주 강학이 창원교도소 고은별 양선자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박계라 조혜자 이선자 조윤희 최일규 정숙이 손광옥 박미혜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최규현 추광식 무주사(삼휴스님) 양정화 이정철 조성희 차춘자 박효주 조경훈 김해원 황현숙 후원금 정남주 최홍석

3월 대한불교조계종 한양정공(주)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이태수 봉림사관음회 옥천사주지 공동모금회 서병찬 서병훈 한성기계(주) 김동진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강현중 박연찬 정혜숙 코벤아이러브 김가희 허재성 김병찬 김점식 김태우 틈새사랑 안병수 김정수 김종근 최승희 윤지여 한행주 김동진 최진호 창원교도소 강학이 한성기계(주) 하진호 양선자 김건우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최규현 박계라 조혜자 이선자 조윤희 최일규 정숙이 손광옥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추광식 양정화 이정철 정남주 더큰병원

4월 조성희 조재경 조경훈 양동원 김해원 서지영 황현숙 후원금 최홍석 200300296 고은별 노지오 노혜원 이태수 남동국 장운영 대한불교조계종 박연찬 박미혜 조택구 권현옥 서상희 정차효 하복순 강현중 코벤아이러브 김가희 김점식 허재성 서병찬 서병훈 김병찬 김정수 최승희 김종근 윤지여 하진호 창원교도소 한행주 최진호 양선자 현대자동차 강학이 한성기계(주) 최돌선 봉림사관음회 박계라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안병수 조혜자 이선자 조윤희 최일규 정숙이 손광옥 박미혜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추광식 진원건설 김태우 양정화 이정철 이마트단체 정남주 조성희 박효주 최규현 조경훈 김해원 황현숙 후원금 최홍석 서병찬 서병훈 강정이

5월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불여사 고은별 이태수 김재환 남동국 노지오 노혜원 박연찬 안병수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강현중 코벤아이러브 김가희 허재성 김주도 사회복지법인인동하(창원한마음병원) 김정수 장운영 하진호 삼정자초등학교 창원교도소 최진호 한행주 최승희 김점식 강학이 윤지여 한성기계(주) 최돌선 김종근 양선자 박계라 김태우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양정화 추광식 조혜자 이선자 조윤희 이정철 대한불교조계종 김병찬 삼정자운영위원회 삼정자학부모회 정숙이 손광옥 박미혜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조경훈 황현숙 후원금 조성희 박효주 김해원 최홍석

6월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이태수 노지오 노혜원 남동국 최규현 고은별 서상희 하복순 강현중 박연찬 코벤아이러브 김가희 최일규 서병찬 서병훈 허재성 이혜숙 안병수 김정수 최승희 김종근 김태우 윤지여 한행주 최진호 창원교도소 강학이 공동모금회 한성기계(주) 최돌선 박계라 양선자 하진호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조혜자 이선자 조윤희 최일규 김병찬 정숙이 손광옥 박미혜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추광식 대한불교조계종 김주도 양정화 이정철 더큰병원 강정이

7월 조성희 황상규 조재경 박효주 조경훈 양동원 김해원 서지영 황현숙 후원금 정남주 박진희(진주동방치과) 최홍석 노지오 노혜원 공동모금회 이태수 남동국 장운영 최규현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박연찬 김재환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강현중 코벤아이러브 김가희 서병찬 서병훈 허재성 김정수 김종근 고성아이비클럽(김성유) 최승희 정차효 윤지여 창원교도소 한행주 하진호 최진호 양선자 강학이 한성기계(주) 최돌선 박계라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조혜자 조윤희 최일규 정숙이 손광옥 박미혜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추광식 김태우 대한불교조계종 김병찬 김주도 이혜숙 좋은일에 써주세요 양정화 이정철 정남주 조경훈



마 음 이 아 름 다 운 당 신 은 보 리 수 의 작 은 희 망 이 됩 니 다.

일반후원금명단

안병수 황현숙 후원금 서병찬 서병훈 강정이 조성희 박효주 김해원 최홍석

8월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노지오 노혜원 최규현 김점식 이태수 남동국 고은별 박연찬 권현옥 서상희 강현중 코벤아이러브 허재성 하복순 김종근 최승희 윤지여 안혜경 이일수 최진호 창원교도소 한행주 김태우 강학이 (주)한성기계 하진호 200300296 최돌선 양선자 이혜숙 김병찬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추광식 박계라 안병수 조혜자 조윤희 대한불교조계종 최일규 양정화 정숙이 박미혜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김주도 불림사관음회 이정철 서병찬 서병훈 최규현 조경훈 황현숙 후원금 공동모금회

9월 조성희 조재경 박효주 양동원 김해원 서지영 최홍석 이태수 남동국 공동모금회 박연찬 고은별 박미자 서상희 하복순 새마을금고중앙회(울산경남지역본부) 강현중 코벤아이러브 김가희 허재성 김점식 안혜경 연화교직원불자회 노지오 노혜원 최용인 김종근 창원정병라이온스 송외순 창원교도소 최승희 최진호 한행주 양선자 강학이 윤지여 (주)한성기계 대한지적공사 최돌선 박계라 김정수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조혜자 조윤희 정숙이 대한불교조계종 박미혜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추광식 김주도 김태진 김현주 양정화 이정철 하진호 조성희 박효주 조경훈 김해원 황현숙 후원금 더큰병원 최홍석 김동진 정남주

10월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200300296 노지오 노혜원 고은별 이태수 남동국 박미자 권현옥 서상희 하복순 강현중 박연찬 코벤아이러브 김가희 불여사 김정수 김종근 이계안 창원정병라이온스 안병수 최승희 최일규 서병찬 서병수 창원교도소 한행주 공동모금회 강학이 윤지여 하진호 최진호 최돌선 양선자 한성기계(주) 박계라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조혜자 조윤희 정숙이 박미혜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양정화 추광식 이정철 김주도 대한불교조계종 정남주 조경훈 황현숙 후원금 이마트단체지원금 박효주 김해원 최홍석

11월 조재경 양동원 서지영 노지오 노혜원 고은별 이태수 남동국 박미자 서상희 하복순 강현중 박연찬 안병수 코벤아이러브 김태우 김점식 김종근 창원정병라이온스 최승희 윤지여 한행주 최진호 창원교도소 강학이 하진호 최돌선 한성기계(주) 양선자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박계라 조혜자 조윤희 박미혜 김철기 전정이 최정윤 추광식 대한불교조계종 김주도 양정화 이정철

12월 조성희 조재경 박효주 조경훈 양동원 김해원 서지영 황현숙 후원금 최홍석 강숙이 손광옥 노지오 노혜원 최일규 이태수 서병찬 서병훈 안영애 남동국 김영완 고은별 박연찬 박미자 안병수 권현옥 서상희 코벤아이러브 울산소원성취사 조현수 초아가라오케 김원자 최규현 김종근 송외순 창원정병라이온스 정차효 최승희 윤지여 한행주 김태우 천사 창원교도소 최진호 고은별 강학이 최돌선 박식 양선자 김동진 설영선 배청자 정순자 조성해 추광식 조혜자 조윤희 정숙이 박미혜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윤 김주도 하진호 박계라 한국세무사회공 양정화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정철 전정이 조경훈 황현숙 후원금 김태우 조성희 박효주 김해원 성미란 더큰병원 최홍석 김점식 노주섭 김가희 김정수 정남주 박미자 강현중 팽현봉 안정임 불림사 관음회 대한지적공사 정불회 김화수 강홍석 동고성농협 공상민 옥천사 조영숙 가천경로당 보광사



마음 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물품후원금

1월

푸드뱅크, 한독약국(문산), 권재섭, 동명한의원, 문병식, 신종준, 보리수회(창원), 박순자, 박우진, 작은사랑(진주), 윤덕점희, 정재훈 · 손지영, 강설인, 우산반점(고성), 영농식육점(사천), 강숙이, 손금옥, 신우회, 전성애 외 1명, 도봉주, 최은경, 농산물품질관리원, 은덕암(고성), 적민스님, 더큰병원(창원), 이정훈 · 이미숙, 보련회, 법우회(두산중공업), 최명희 · 염용하, 경남아동연합회, 최관경

2월

김두선, 김창진, 보리수회(창원), (사)한국피부미용협회, 최혜순, 김영강지인, 고성군청(주민생활과), 차인회(고성), 푸드뱅크, 최상숙 · 이우중, 대한양돈협회, 개천면체육회, 한독약국(문산), 고성군청, 최을림, 고성군의회, 불심회(창원교도소), 경남도청, 박영희(대구), 박상범, 전국한우협회(농업기술센터), 외환은행(진주), 고성성심병원, 박지원지인, 토토, 생활선원, 어득수지인, 박상규, 불명, 권현옥산부인과, 윤정남, 동명한의원, 김상덕(부산), 정선옥, 전성애 외 1명, 강홍석, 더큰병원(창원), 달마선원(울산), (배둔)적벽돌, 윤정남, 이정화, 김대원지인, 김집 · 이은희, 김삼숙, 봉림사관음회(창원), 보리수회(창원), 최관경, (부산)선광사, 보련회, 강숙이, 손금옥, 김영호(삼우실업), 작은사랑(진주), 통영연화사, (사)자연보호연맹 경상남도협의회, 소원성취사(울산), 백순이

3월

소원성취사(울산), 송유영, 조현배, 보리수회(창원), 선문사, 르네시떼(미라클), 동명한의원, 푸드뱅크, 강설인, 한독약국(문산), 황홍점, 김상조(고성군), 틈새사랑, 선광사, 윤덕점희, 최태림(마암면), 백순이, 전성애 외 1명, 더큰병원(창원), 신우회, (사)한국피부미용협회, 최관경, 우산반점(고성), 강숙이, 손금옥, 함안무학사(박영제), 강송훈, 보련회, 김은정, 진주안경원(양정훈)

4월

한독약국(문산), 푸드뱅크, 하진호, 불여사, 보리수회(창원), 최혜순, 동명한의원, 작은사랑(진주), 강숙이, 손금옥, 윤덕점희, 김숙이(고성), 함안무학사(박영제), 강경숙, 문은순, 최관경, 틈새사랑, 더큰병원(창원), 전성애 외 1명, 윤정남, 우산반점(고성), 청련암, 경남아동연합회, 김애숙(김제성), 사천곤양(비구니스님), 강설인, 보련회, 김준식

5월

동명한의원, 김은정, 손금옥, 용각사(고성동해면), 성호건설(고성), 최을림, 문병식, (주)태광, 법우회, 박태봉, 한독약국(문산), 양경애, 강삼녀, 최관경, 윤덕점희, 신우회, 조영숙(파머스마켓), 전성애 외 1명, 삼정자초등학교, 김상임, 함안무학사(박영제), JTS(정토회), 우산반점(고성), 강설인, 김영강지인, 한마음병원(창원), 만일봉사회, 도림사(하동)

6월

무주사, 창원문성대학, 유진일(젠장버거), 박철휘지인, 보리수회(창원), 김영주(성곡), 도림사(하동), 최현연(경남FC), 한독약국(문산), 정모인(영현면), 문병식, 광형석, 동명한의원, 강숙이, 손금옥, 불명, 푸드뱅크, 우병옥(영오면), 송병옥, 김명자, 하진호, 최관경, 조영숙(파머스마켓), 더큰병원(창원), 최은경, 윤상일(동균할머니), 청련암, 황홍점, 우산반점(고성), 최상숙 · 이우중, 강설인, 김영강지인, 백준호, 이규호, 윤정남, 경남아동연합회, 박진한, 임정재지인, 창원문성대학(행정학과)

7월

한독약국(문산), 손금옥, 조영숙(파머스마켓), 동명한의원, 우병옥(영오면), 한경희, 이정화, 강송훈, 강숙이, 더큰병원(창원), 푸드뱅크, 김은정, 원각사(고성), 최관경, 작은사랑(진주), 윤상일, 백순이, 황정숙, 이상진(소명건설), 르네시떼(미라클), 박건호, 전성애 외 1명, 백인한, 우산반점(고성), 보리수회(창원), 하진호, 강설인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물품후원금

8월

두산큰사랑회, 강숙이, 한경희, 이소영, 한독약국(문산), 동명한의원, 조영숙(파머스마켓), 송명훈, 박영희(대구), 최관경, 전성애외1명, 책임논사회문화재단, 천호정갈비, 우산반점(고성), 강설인, 봉림사관음회(창원), 유진일(젠장버거), 이정화, 박진일, 만승스님, 윤정남, 더큰병원(창원)

9월

신우회, 보리수회(창원), 강경숙, 함안무학사(박영재), 한독약국(문산), 윤덕점회, 어득수지인, 손금옥, 동명한의원, 고성교육청, 불여사(유연희), 두산큰사랑회, 푸드뱅크, 조영숙(파머스마켓), 경남은행(고성), 강송훈, 개천면체육회, 고성군청, 최명희·염용하, 고성성심병원, 창원대산동아기업, 경남교육청(교육감),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군의회, 창원문성대(사회복지학과), 이형숙, 하진호, 전성애외1명, 최을림, 외환은행(진주), 윤상일, 불심회(창원교도소), 작은사랑(진주), 생활선원(주)가야홈관산업, KT고성지점, 권현옥, 이동훈, 김영강지인, 최관경, 이호승지인, 윤정남, 정해숙, 우산반점(고성), 무주사, 더큰병원(창원), 보련회, 창원문성대학(부동산학과), 강설인, 경남이동연합회

10월

윤상일, 우병옥(우산면), 한독약국(문산), 강숙이, 손금옥, 동명한의원, 보리수회(창원), 고성영현면(익명), 푸드뱅크, 창원정병라이온스, 보리수회(창원), 작은사랑(진주), 윤덕점회, 경남이동연합회, 윤현식, 이미정, 최관경, 박효주, 양경애, 대전시립정신병원, 최명림, 더큰병원(창원), 불명,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적민스님, 민향순, 하진호, 보련회, 최혜순, 우산반점(고성), 윤정남, 하창식

11월

푸드뱅크, 정선옥, 신우회, 보리수회(창원), 두산큰사랑회, 강숙이, 손금옥, 불명, 한독약국(문산), 공동모금회, 동명한의원, 더큰병원(창원), 유진일(젠장버거), 윤덕점회, 강설인, 신귀태, 이정화, 영농식육점(사천), 박영희(대구), 김구철, 범우회(두산중공업), 이정화, 김영주(성곡), 창원정병라이온스, 최성호, 함안무학사(박영재), 김기섭, 최관경, 박준곤, 송성훈, 이현판(김울배, 성인구, 김용철), 황명성, 송병옥, 박상범, 박재두, 사천곤양(비구니스님), 동그라미(김종원), 보련회, 백승옥, 윤상일, 우산반점(고성), 도선사(서울), 하진호

12월

창만회, 아동복지연합회, 조규열, 송유영, 천상옥·오수진, 한독약국(문산), 푸드뱅크, 최규원(부산), 창원벽산아파트(부녀회), 동명한의원, 소원성취사(울산), 김명자, 조영숙(파머스마켓), 자스민회(고성), 윤덕점회, 강경숙, 문병식, 대길지보살, 무주사, 이정화, 강설인, 더큰병원(창원), 내서로타리클럽(창원), 김정란, 동명한의원, 김일정, 한경희, 함안무학사(박영재), 다솜회,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하창식, 최관경, 우산반점(고성), 경남이동연합회, 박효주, 양경애, 고성(목욕탕), 불여사, 좌연회관(주)에스에이에스, 팽현봉, 봉림사관음회(창원), 작은사랑(진주), 보리수회(창원), 진주불교청년회, 정토만일회, 천호정갈비, 강숙이, 개천면장님, 신귀태, 최운경, 정영숙, 한독약국(문산), 조영숙(파머스마켓), 이미정(해피랜드), 이재현, 신현숙, 정정숙(보건소), 오영근(서울유유), 윤정남, 전국한우협회(고성농업기술센터), 길상사, 최을림, 박상범, 김미정·윤광호, 범우회(두산중공업), 하창식



마음 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결연후원금내역

강경숙 : 김영강, 김대원(퇴소), 유승영, 박철휘, 김태현, 석원진, 박예은(퇴소), 이상민, 어득수, 김성현, 오수정, 김희태, 유승민, 황경선, 이명진, 박지원, 오슬기, 김종수, 김영찬, 김성환, 유관중, 전주영, 황재균, 김원영, 임정재, 김다솜, 이은미, 신경이, 박유영, 박경주, 김인시후, 이청란, 배희승, 김백천, 김영천(퇴소), 양진우, 한승민, 김동천, 이수현, 이정현(퇴소), 김인왕, 김인제제, 석준영, 김효림, 신민규, 이대웅, 박의렬, 박사훈, 박지우, 최민서, 박지환, 김광석, 박정민, 박민승, 석동인, 이택겸, 김철영, 신영주

강승규 : 김백천

강옥환 : 김인왕, 김인제제, 김인시후, 오슬기, 김종수

강정이 : 이상민

구나운 : 이대웅

권효섭 : 이택겸, 이청란

김문례 : 석동인

김봉환 : 김동천

김상임 : 이상민

김수희 : 최민서

김외경 : 박민승, 신경이

김인순 : 박경주

김인순, 공우상 : 박경주

김주열 : 김영천(퇴소)

김태완 : 김다솜

김형수 : 김신

김흥구 : 박정민

노동휘 : 양진우

노유란 : 최민서

류소영 : 이종섭(퇴소)

박명주 : 김효림

박미선 : 유관중, 석준영, 김영찬

박민서 : 유관중, 이정현, 박경주

박순자 : 박사훈, 박지우

박용희 : 김종수, 양진우, 오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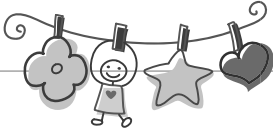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결연후원금내역

서부춘 : 박의렬
서영희 : 유승영
석병길 : 석동인
송준영 : 임정재
신태한(일신스님) : 신민규
안정애 : 이은미
우동철 : 김인시후
원종운 : 한승민
이관용 : 임정재
이숙진 : 석준영
이정화 : 김철영
이화옥 : 김철영, 김신, 신영주
이희옥 : 배희승
장현진 : 전주영, 박지환
정서윤 : 김인제제
정유섭 : 황재균
조규열 : 신영주
조선례 : 김원영
하린영 : 박지환
하우순 : 김영천(퇴소)
하지우 : 김효림, 신민규, 박유영
허민영 : 김종수
황경수 : 신민규
후원금 : 박의렬

공동모금회 : 김원영, 김형택(퇴소), 이수현, 이정현(퇴소), 김광석
동그라미회 : 이명진, 신민규, 김종수, 이대웅, 김인제제
어린이재단 : 한승민, 이수현, 김동천, 박사훈, 석동인
(주)신아정밀 : 김성환
현대자동차 : 신민규
호성기계 : 박사훈, 박지우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1. 해피빈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 해피빈이란?

해피빈은 3,500만 네티즌과 공익 단체, 후원파트너가 함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 해피로그란?

해피빈에서 지원하는 공익단체들의 블로그입니다.

♡ 콩이란?

콩은 온라인 기부아이템을 뜻하며,
콩 1개 = 1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콩 모으는 방법은?

첫째, 네이버에서 콩메일을 쓰세요. 매일 한 통으로 콩 1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1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네이버 지식in 답변하기에 참여하고 콩을 모읍니다.

셋째, 네이버와 해피빈 곳곳에있는 콩 배너를 클릭하고 콩을 받습니다.

넷째, 매달 15일 해피빈 기부day에 참여하고 콩을 받습니다.

다섯, 카드 포인트(BC카드 포인트, KB카드 포인트)를 콩으로 바꿉니다.
(100포인트 = 콩 1개)

여섯, 소액이라도 내가 가진 현금, 네이버 코인으로 콩을 충전합니다.
(100원 = 콩 1개)

♡ 참여 방법은?

첫째, 콩 모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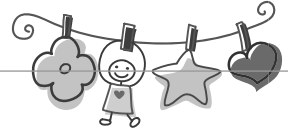
네이버(www.naver.com) 로그인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콩 모으기(자신이 보유 한 콩에 대한 정보는 MY 해피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콩 기부하기

보리수동산2010 가기 (해피빈 검색창에서 '보리수동산' 검색) ... 보리수동산 2010 해피로그 ...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기부하기' 클릭

보리수동산 후원금은 여러 가지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되어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모두 다양한 문화 체험 및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해피빈에서 소득 공제의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선물받은 콩을 기부하셨을 경우, 결제를 통해 충전콩을 선물하신 분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후원캠페인을 통해 받은 콩으로 기부하신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2. 이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 시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희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마트에서 필요하신 물품도 구매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보내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

♡ 이마트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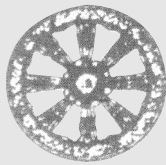
첫째, 이마트 엘리베이터 옆에 배치된 무인적립기에 갑니다,
둘째, 화면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 '보리수동산지정번호(진주:239, 마산:5)' 클릭
셋째, 화면 아래 바코드인지 면에 영수증 맨 끝에 있는 바코드를 갖다 대세요,
넷째,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시면 끝~

지점명	기관명	지정번호	연락처
마산 이마트	정토만일회	005	055-711-1234
진주 이마트	보리수동산	239	055-749-1234

♡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깜빡하고 잊으셨을 경우, 경남 고성군 옥천사내 청련암이나 보리수동산으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 분기 별로 영수증으로 모아서 마산과 진주에 있는 이마트에 적립해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정토만일봉사회

회장 강미석

638-980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전화 : (055) 672-0078 팩스 : (055) 672-1308

사랑과 꿈을 나르는 보리수회

회장 변점용

창원시 소담동 105-1 송백해피빌 202호

휴대전화 : 011-871-3033

(주)동아기업 대표 이우중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23 ☎055-343-4900	변재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11호 영창빌딩 2층 ☎055-264-0390~1	BK건설주식회사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전문소방 대표이사 이충희 경남 창원시 명서동 104-1 KT서창원지점 4층 ☎055-237-7801~3
(유)대보 대표 박문순 경남 마산시 봉암동 376-6 ☎256-0733	서진호 의원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611-202 ☎673-1977	이상흠이비인후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71-4번지 자산빌딩 2층 ☎674-7933
이일수 (순환기내과 과장/전문의 의학박사)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212 ☎270-1253	대한지적공사 울산 경상남도 본부 고성군지사 ☎673-3539	(주)두산중공업 큰사랑회·법우회 봉사단체
반성주유소 하창식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47번지 ☎758-8817, 016-586-8817	株式會社日光電氣建設 사장 김선일 진주시 상평동 203-3번지 ☎755-7766, 011-583-6632	진주동방치과 경남 진주시 대안동 12-10번지 ☎055-747-5500
the큰병원 원장 김경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0(명서동) ☎055-2700-800		Beautiplex 뷰티플렉스 대표 강숙이 경남 마산시 월남동 5가 4-8번지 ☎055-245-8743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마하어린이재단 마하어린이도서관 관 장 성 공 스 님 경남 진주시 초전동 1345-1 ☎055-753-9922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 장 문 병 하 경남 진주시 동진로 273(상대동) ☎055-763-6677
대한불교조계종 화방복지원 화방동산 원 장 법 광 스 님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211번길 81-35 ☎055-863-2286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 노인전문요양원 원 장 최 분 이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3 ☎055-329-1733
내원정사 반야원 원 장 안 희 관 경남 거제시 동부면 울포로 555-20 ☎055-632-1854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노인복지관 관 장 곽 인 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4-3 ☎055-221-8445
창원 성주사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 원 정 스 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1 하이퍼르상가 14층 ☎055-266-8155	사회복지법인 연꽃 연꽃노인요양원 일 여 스 님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983-17 ☎055-964-5577
사회복지법인 능원복지재단 효능원 원 장 이 선 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38 ☎055-342-4443	사회복지법인 만월 만월노인요양원 여 진 스 님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산길 212 ☎055-648-1186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박 기 련 경남 거제시 양정1길 45 ☎055-636-0303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원 원 장 석 봉 국 경남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17 ☎055-381-2005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창군 삶의심터 관 장 은 산 스 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 ☎055-945-2014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국제 로타리3590지구 진주축석 로타리클럽 경남 진주시 봉곡동 23-13 ☎055-749-2468	개 천 된 장 김향숙, 탁동열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518 E-mail : gdcj@naver.com ☎055-672-5459, 011-9332-3500	(주) 동명특수강 대표 이 성 갑 경남 진주시 상평동 158-20 ☎055-753-8822~3, 762-3344~5 취급품목 : 탄소강, 합금강, 공구강, 마한봉
진주작은사랑 인터넷동호회 daum.net/love4i 봉사단체	학우문구센타(창원점) 대표 노 동 휘 경남 창원시 사파동 119-12 ☎267-9799	프로스팩스 박 상 범 김해시 안동 360-1 국제상사물류센터 ☎016-551-6024
무 학 사 학봉스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산50 ☎583-2113	부산 이옥자님 미용봉사단체 회원일동	동그라미회 총무 김 종 원 ☎011-9503-0755
옥 천 사 진성스님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672-0100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일동	천사미용봉사단 회원일동
(주) 세 창 악 기 대표이사 최 호 진 경남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1030-1번지 Tel 055-271-6881~4, Fax 055-271-4186	보련회 중식봉사단체 회원일동	변호사 손양곤 법률사무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91 ☎055-762-8866
국제로타리클럽 동부로터리클럽 경남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 76 Tel 055-673-5064	동 명 한 의 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980-19번지 ☎031-732-0772	아이멘토링 학습봉사
자동차/화재/자금대출/적금/연금 LG화재 도동영업소 대리점 대표 김 점 연 경남 진주시 평안동 168(구. 나포리예식장3층) ☎747-8474, 8475	이 엠 코 리 아 (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98-3번지 ☎055-582-6221	 황토 떡 방앗간 이 화 옥 경남 창원시 대동왕도방 상가지하 104호 ☎264-9490, 267-8521, 019-271-9490
운 흥 사 종목스님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442 ☎055-835-8656	국제 로타리3720지구 창원성산로타리클럽	 韓國精密器械株式會社 대표이사 하 종 식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475-4 ☎582-7871~5, 582-2153~5
문 수 암 법광스님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134번지 ☎672-8078	KEB 진주외환은행 경남 진주시 동성동 5-7번지 ☎055-743-1015	장수한의원 (구)장수당건재 원 장 김 봉 근 마산시 회원2동 578-13번지 ☎248-1997, 248-0855
국제 라이온스클럽 355-C지구 창원정병라이온스클럽	국제로타리3720지구 마산3지역 마산내서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3720지구 창원정상로타리클럽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보 현 사 월전스님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암리산1-2번지 ☎673-1192	봉 립 사 운남스님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237-2266	불 곡 사 도홍스님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 ☎282-7402	세 원 암 천우스님 경남 마산시 예곡동 산42-1(불영산) ☎055-221-7730
성 주 사 원정스님 경남 창원시 성주동 102 ☎262-0208	여 여 정 사 정여스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355-9290	선 광 사 성운스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1동 산8-32번지 ☎051-302-5657	(주)한성기계 이사 우동철 경남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 79번길 ☎055-755-7722
남정기업 대표 민 송 식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57 ☎055-672-4703	창원봉림사관음회 회장 최 창 우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018-560-5515	칠 불 사 도웅스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883-1869	고성 우산반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6번지 ☎055-672-883
화 방 사 범광스님 경남 고령군 대곡리 1448번지 ☎863-5011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혜근스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번지 ☎744-1321	연 화 사 도법스님 경남 통영시 미수2동 44-1 ☎645-6683	천지선원 보운스님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235-2 ☎742-0511
사천달마사 해일스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72 ☎852-3355	정 인 사 원행스님 경남 마산시 양덕1동 41-2 ☎256-5450	미 래 사 여진스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33 ☎645-5324	법 료 사 경남 통영시 태평동 368-1 ☎645-5430
한국제강 대 표 하 성 식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5번지 ☎582-6800	신우회 특식 봉사회원 일동 ☎010-7440-7900	마산가고파 로타리클럽 총무 최 정 호 ☎010-3778-8595	부산 생활선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1049-2번지 ☎051-852-009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외외리 331-4 ☎055-674-6050	진주안경원 부산정보대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대표 양정훈 ☎055-753-9555	창원삼정자초등학교 교 장 광 동 국 경남 창원시 삼정자동 484-1 ☎055-264-2362	나눔의 향기 회장 이영백님의 회원일동
과수사랑회 교육봉사단체 회장 오원숙님의 회원일동	한국산업 경남 창원시 상남동 23-7번지 토토스빌딩 12층	가마골숯불촌 대표 윤 중 갑 경남 창원시 가음정 본동 520 ☎282-8100	영농식육점 대표 박 범 기 경남 사천시 정의리 389(시장통내) ☎852-0621
개천우체국 국 정 정 창 민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625 ☎672-0001	죽 림 사 자문스님 ☎834-3254	백 운 암 지정스님 ☎852-3226	관 음 사 명전스님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장촌리 630번지 ☎754-6355
국 관 사 보련스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창리 산12 ☎852-1049	금 강 사 성원스님 경남 거제시 신흠동 수월리 216 ☎636-8634	모 충 사 백산스님 경남 사천시 송포동 산140 ☎055-834-3450	무 주 사 랑천스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275-543 17동 반송빌딩 ☎051)532-6563
미 륵 암 정연스님 경남 진주시 가좌동 326번지 ☎759-8243	보 광 사 도홍스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69 ☎674-2864	연 공 방 대표 최 은 경 ☎010-8542-5936	창원 삼성카드 총무 허재현님의 봉사회원 일동 ☎010-2535-5680
마산교도소 불심회 회원 일 동	연화 교사 불자회 회장 최명림	호전종합건설 도목시설물 건설업 대 표 류 주 열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973-5 ☎055-674-0294/010-9512-4717	강 원 물 류 대 표 노 주 현

법인 및 시설 세입 세출 예·결산 보고

1.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단위 : 원)

2013년도 결산서				2014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재산수입	1,200,000	사무비	4,917,640	재산수입	1,200,000	사무비	23,500,000
후원금수입	87,203,188	재산조성비	93,395,600	후원금수입	75,200,000	재산조성비	77,500,000
		사업비	19,297,650	이월금	153,000,000	사업비	61,000,000
이월금	240,234,256	시설전출금	51,000,000	예금이자수입	2,300,000	시설전출금	50,000,000
예금이자	201,466	잡지출		잡수입	3,000,000	잡지출	2,700,000
		차년도이월금	160,228,020			예비비	20,000,000
계	328,838,910	계	328,838,910	계	234,700,000	계	234,700,000

2. 사회복지시설 보리수동산

(단위 : 원)

2013년도 결산서				2014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보조금수입	1,113,093,200	사무비	855,621,771	보조금수입	1,146,523,768	사무비	995,560,600
후원금수입	91,170,506	재산조성비	809,447,690	후원금수입	81,500,000	재산조성비	23,500,000
법인전입금	51,000,000	사업비	151,529,330	법인전입금	50,000,000	사업비	151,125,568
이월금	683,872,570	교육비	64,717,262	이월금	70,218,220	교육비	72,537,600
예금이자	602,695	프로그램사업	26,512,480	예금이자	100,000	프로그램사업	109,060,000
잡수입	7,205,960	잡지출		잡수입	8,020,000	부채상환금	100,000
		반환금	108,010			잡지출	100,000
		차년도이월금	39,008,388			예비비	4,378,220
계	1,946,944,931	계	1,946,944,931	계	1,356,361,988	계	1,356,361,988



「사랑의 후원 보내기」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씨앗이 되어 큰 나무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후원안내」

- ♥ 후원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금은 전화나 팩스 또는 편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후원금은 꿈을 키워가는 보리수동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1. 무통장입금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후원계좌	농협 : 827089-56-006691	예금주 : 강옥환(정토만일회)
	우체국 : 612564-01-000652	예금주 : 정토만일회
시설후원계좌	경남은행 : 525-07-0087863	예금주 : 정토만일회보리수동산
	농협 : 351-0053-7132-63	예금주 : 보리수동산
	우체국 : 612564-01-001104	예금주 : 보리수동산
	(환경개선지정후원금)	
	경남은행 : 522-07-0084675	예금주 : 보리수동산강옥환

2. 은행간 자동이체

거래은행에서 위 은행으로 계좌간 이체 신청을 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금융 기관에 직접 신청

3. 지로입금

본 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후원신청서 및 지로를 보내드리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4. CMS 자동이체 신청

보리수동산 055)673-5321번으로 전화하시어 CMS후원신청에 필요한 몇가지 정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보리수동산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을 기다립니다」

생필품, 의류, 책, 참고서, 신발, TV

「보리수 동산은....」

보리수동산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만 18세이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 시설입니다. 우리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복지시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기를 나아가야 할 아동들이 불우하고 위험한 환경에 더 노출되지 않고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초록연꽃

발행처 : 보리수동산

발행인 : 승욱 스님

편집위원 : 박말선 · 허민영

보리수동산을 후원해 주신 업체를 소개합니다

용 하 한 의 원

네명의 전문한의사 원장님이 공동으로 진료하고 연구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발휘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한의원, 환자가 중심이 되고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한의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한의원이 되도록 저희 용하한의원 일가죽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하한의원의 3단계 특수치료법

- 1단계 : 혈액정화
- 2단계 : 오장육부 기능조절
- 3단계 : 면역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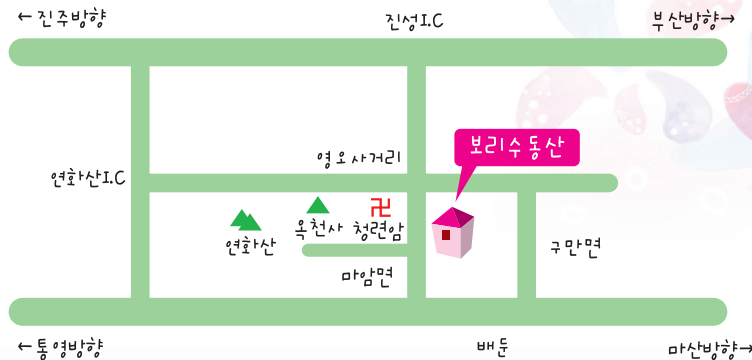
용하한의원의 전문클리닉

- | | | |
|-----------|-----------|------------|
| 1.중풍예방클리닉 | 2.여성클리닉 | 3.과민성대장클리닉 |
| 4.회복클리닉 | 5.만성피로클리닉 | 6.척추관절클리닉 |
| 7.한방피부클리닉 | 8.간해독클리닉 | 9.간질클리닉 |
| 10.알러지클리닉 | 11.수험생클리닉 | 12.스트레스클리닉 |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25-1(상공회의소 계량중학교 뒷편)

TEL : (055) 633-3114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정토만일회

638-982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4길 37-10

전화 : (055) 673-5321 팩스 : (055) 673-5347

홈페이지 www.borisudongsan.or.kr